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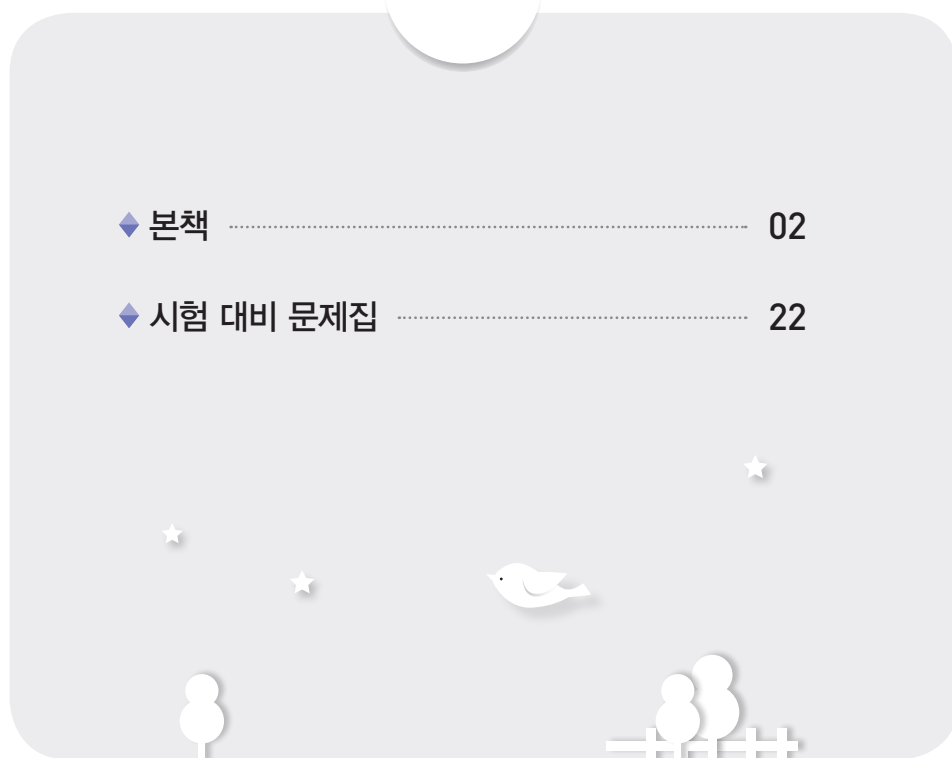


정답과 해설

비상교육 교과서편(김진수 외)

중등 국어 1-1

◆ 본책	02
◆ 시험 대비 문제집	22





1 마음을 움직이는 글

[1] 비유 표현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008쪽

1 (1) ○ (2) × (3) ○ 2 비유 3 ⑤

- (2)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운율’이라고 한다. ‘심상’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이나 감각적인 느낌을 말한다.
- ‘비유’는 어떤 대상을 그와 비슷한 점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비유’를 사용하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대상을 인상 깊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표현하려는 대상인 ‘입술’을 ‘같은’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앵두’에 직접 빗대고 있다.

학습목

본문 009쪽

별들, 유성, 사람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009쪽

01 ③ 02 ④ 03 유성

- 이 시에는 같은 문장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시의 운율은 겹으로 드러나지 않고 시 속에서 은근히 느낄 수 있다.
- ①에는 표현하려는 대상인 ‘밤하늘’을 연결어 없이 ‘운동장’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쓰이고 있다. 이와 동일한 표현 방법이 쓰인 것은 ④로, ‘나’를 ‘나룻배’에, ‘당신’을 ‘행인’에 각각 빗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같이’ 노래를 부른다고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② ‘같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꽃’을 ‘내 누님의 얼굴’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③ ‘같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직유법과 ‘햇발’이 ‘돌담’에 속삭인다고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⑤ ‘샘물’이 웃는다고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①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떨어지는 ‘유성’을 비유한 표현이다. ‘빛나간 야구공’과 ‘유성’은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학습 활동

본문 010~014쪽

이해 밤하늘, 천둥소리, 유성, 유성
적용 불길, 입술, 털, 눈, 봄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10~014쪽

010쪽	01 ③	02 ⑤
011쪽	03 ⑤	04 ①, ④
012쪽	05 ②	06 은유법 07 ③
013쪽	08 ②	09 ④
014쪽	10 ③	

- 이 시는 별들이 가득 찬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은유법과 의인법을 활용하여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 대화하는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①의 ‘빛나간 야구공’(보조 관념)이 뜻하는 대상은 ‘유성’(원관념)이다. ‘빛나간 야구공’과 ‘유성’은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④와 ⑤는 모두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④를 ⑤와 같이 바꾸면, 원래의 표현에 쓰인 은유법과 의인법이 사라짐으로써 참신함이 없어지고, 별들이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생한 느낌도 약해진다.
오답 풀이 ① 비유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시의 주제를 알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② ④에서보다 ⑤에서 리듬감이 더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③ 표현하려는 대상을 직접 설명했기 때문에 시어의 함축적 의미가 없어진다.
 ④ 표현하려는 대상을 직접 설명했기 때문에 시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
- 이 시에는 은유법과 의인법이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면 대상을 인상 깊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다.
-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봄’을 ‘고양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즉 말하는 이가 ‘고양이’인 것은 아니며, 말하는 이는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는다.
- 이 시의 제목인 ‘봄은 고양이로다’에서는 ‘A는 B이다’의 형태로 ‘봄’(원관념)을 ‘처럼, 같이’와 같은 연결어 없이 ‘고양이’(보조 관념)에 비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은 은유법이다.
- 이 시의 각 연에서는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의 모습에서 떠올린 봄의 느낌을 노래하고 있다. ③의 고양이의 코는 이 시의 말하는 이가 떠올린 고양이의 모습이 아니다.
- 이 시의 1연에서는 ‘고양이의 털’(원관념)이 ‘꽃가루’(보조 관념)와 같이 부드럽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부드럽다’는 공통점을 지닌 두 대상을 연결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직유법에 해당한다.
- 이 시에서는 고양이의 모습에 담긴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를 봄의 속성에 조화롭게 연결했는데, ‘봄의 불길’과 ‘봄의 생기’는 동적인 이미지, ‘봄의 향기’와 ‘봄의 줄음’은 정적인 이미지에 해당한다.

- 10 ①, ②, ④, ⑤에는 ‘처럼’, ‘같이’와 같은 연결어를 통해 대상을 비유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③의 ‘같이’는 연결어가 아니라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라는 뜻을 지닌 낱말이다. 따라서 ③은 ‘학교 운동장’을 ‘친구’에 빗댄 표현이 아니라, ‘나’가 ‘친구’와 함께 학교 운동장을 거닐었다는 의미의 시구이다.

압축 파일

본문 015쪽

- ① 별 ② 야구공 ③ 의인법 ④ 청각 ⑤ 봄 ⑥ 털
⑦ 금방울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16~017쪽

- 01 ③ 02 ⑤ 03 ⑤ 04 ⑤ 05 ② 06 ④ 07 빛
나간 야구공 하나 08 ① 09 ② 10 ④ 11 ②

- 01 (가)의 6행에는 의인법이 쓰이지 않았다. (가)의 6행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유성’이 나타나는 순간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 02 (나)는 ‘봄’을 ‘고양이’에 빗대어 봄의 느낌을 표현한 시이다.
- 03 [A]에는 은유법과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 표현하려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더욱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 04 (나)의 1연에서 ‘고양이의 털’과 ‘꽃가루’의 공통점은 부드럽다는 것이고, 2연에서 ‘고양이의 눈’과 ‘금방울’의 공통점은 호동 그렇다(크게 뜬 눈이 둥그렇다)는 것이다.
- 05 ㉠은 이 시의 제목인 ‘유성’을 빗댄 표현으로, 은유법이 쓰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꽃’이 웃는다고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③ ‘내 얼굴’을 ‘사과’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둥근 박’이 꿈꾼다고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⑤ ‘하이얀 꽃 이파리’가 날리는 모습을 ‘눈송이’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 06 (가)는 은유법과 의인법, (나)는 직유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려는 대상을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는 ‘-에’, ‘-도다’, ‘-아라’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가)는 동일한 시구나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② ‘향토적’이라는 말은 고향이나 시골의 정취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가)와 (나)에는 향토적인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와 (나)에는 상징적인 시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⑤ 말하는 이가 시 속에 등장하려면 ‘나’라는 대상이 나와야 하는데, (가)와 (나) 모두 시 속에서 말하는 이를 찾을 수 없다.
- 07 **서술형** (가)에서는 시의 제목인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빛 나간 야구공 하나’에 빗대어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8 이 시는 고양이를 통해 떠올린 봄의 느낌과 분위기, 정서를 감각적으로 묘사한 시로, 말하는 이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09 (나)의 4연에서는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노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가 ‘고양이의 수염’에서 ‘봄의 생기’를 떠올렸음을 알 수 있다.

- 10 (나)와 같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참신하고 생생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대상을 인상 깊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비유적 표현을 활용한다고 해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1 ㉠은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마치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에 쓰인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다.

(2) 상징 표현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018쪽

- 1 (1) × (2) ○ (3) ○ 2 시조 3 ①

- 1 (1)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등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 2 시조는 고려 중기에 발생하였고,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여 지금까지도 창작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다.
- 3 3장 6구 형식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시조를 평시조라고 한다. 옛시조나 연시조, 사설시조는 평시조에서 길이나 형태 등이 변화된 시조이고, 현대 시조는 오늘날 창작되고 있는 시조를 말한다.

학습곡

본문 019쪽

이웃, 이웃, 진눈깨비, 함박눈, 새살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019쪽

- 01 ③ 02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03 ⑤

- 01 이 시는 ‘우리’를 ‘눈발’로 가정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자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2 이 시에서 말하는 이는 현실을 삭막하고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에서 ‘바람’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의미한다.
- 03 이 시의 말하는 이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 ‘함박눈’, ‘편지’, ‘새살’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학습 활동

본문 020~023쪽

- 이해** 진눈깨비, 함박눈, 희망, 함박눈
적용 변하지, 세상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20~023쪽

- 020쪽 01 함박눈, 편지, 새살 02 낮은, 따뜻함 03 ④
021쪽 04 ④ 05 ⑤
022쪽 06 ④ 07 ⑤ 08 좋고도, 아마도, 보고도
023쪽 09 ③

- 01 이 시에서 '함박눈, 편지, 새살'은 위로, 격려, 희망 등의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이고, '진눈깨비, 바람, 깊고 붉은 상처'는 무관심과 외면, 고통, 슬픔 등의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따라서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말하는 이의 바람이 반영된 시어들은 '함박눈, 편지, 새살'이다.
- 02 '함박눈'은 '진눈깨비'와 대비되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와 따뜻함을 전하는 존재이다.
- 03 이 시에서 '진눈깨비'와 '함박눈'은 서로 의미가 대비되는 소재이다. '진눈깨비'는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이웃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상징한다. 반면 '함박눈'은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을 상징한다.
- 04 이 시의 '잠 못 든 이'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거나, 그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④는 '잠 못 든 이'를 돌보는 사람, 즉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 05 이 시의 말하는 이는 '함박눈', '편지', '새살'이 되자고 말하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06 이 시조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자연물을 대조하여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 07 이 시조에서 '꽃'과 '풀'은 순간적이며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 깨끗하고 영원한 속성을 지닌 '물, 바위'와 대비된다.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과묵한 속성을 지닌 자연물은 '달'이다.
- 08 갈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조에서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세 글자로 고정해야 한다.
- 09 이 시조에는 설의법, 의인법, 대조법 등이 쓰이고 있다. ③에는 이 시조에 활용되지 않은 열거법이 쓰이고 있다. ①, ④에는 의인법, ②에는 설의법, ⑤에는 대조법이 쓰이고 있다.

압축 파일

본문 024쪽

- ① 새살 ② 긍정적인 ③ 바람 ④ 위로 ⑤ 깨끗하다
⑥ 변하지 않는다 ⑦ 과묵한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25~026쪽

- 01 ④, ⑤ 02 ② 03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 04 ⑤ 05 ④ 06 ① 07 ④ 08 ③ 09 ⑤ 10 ③

- 01 (가)와 (나)에는 모두 상징적 시어가 쓰이고 있으며, 상징적 의미가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말하는 이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과 그것을 빗댄 대상(보조 관념)이 모두 겹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유'이다. (가)와 (나)에는 모두 '상징'이 사용되었다.
② (가)에서만 청유형 문장을 활용하여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듣는 이의 공감과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③ 4음보의 율격을 보이고, 한 음보의 글자 수가 3(4)·4조로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는 것은 시조인 (나)이다.
- 02 (가)의 말하는 이는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 ②는 친구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위로를 건네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03 **서술형** (가)에서 '진눈깨비'와 '함박눈'은 서로 대비되는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말하는 이가 '따뜻한 함박눈이 되어 내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함박눈'은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04 '작은 것'은 '달'로,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자연물이다. 말하는 이는 세상을 밝게 비추면서도 과묵한 속성을 지닌 '달'을 예찬하고 있다. 말하는 이는 이외에도 '물'과 '바위'를 예찬하고 있는데, '구름'과 '바람'은 '물'과, '꽃'과 '풀'은 '바위'와 대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 05 (나)에서 '물'은 깨끗하고 그치지 않는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반면 '바위'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굳건하고 의연한 태도를 상징한다. ④의 남을 포용하는 태도는 '달'이 상징하는 삶의 태도이다.
- 06 시조는 3음보의 민요와는 달리, 4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 07 (가)에서 '물'은 그치지 않는 속성 즉, 영원성과 지속성을 지니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구름'과 '바람'은 쉽게 변하는 속성(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 08 (나)에서 '잠 못 든 이'는 현실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의미한다.

09 '진눈깨비'는 '무관심, 외면, 고통'을 상징하는 시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더욱 춥고 힘들게 만든다. 따라서 말하는 이는 '진눈깨비' 같은 존재는 되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10 ㉠, ㉢, ㉤, ㉥는 모두 말하는 이가 소망하는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에는 삶의 태도가 담겨 있지 않다.

[3] 자료 찾으며 책 읽기

학습목

본문 027~036쪽

- 030쪽 도서관, 관심
- 034쪽 제목, 개념
- 036쪽 느낀 점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27~036쪽

- 027쪽 01 ③ 02 ②
- 028쪽 03 ① 04 책을 고르는 방법 / 책을 선정하는 방법
- 05 ③
- 029쪽 06 ④ 07 ③
- 030쪽 08 ① 09 ⑤
- 031쪽 10 일지 11 ②
- 032쪽 12 ② 13 ②, ④
- 033쪽 14 ④ 15 ④
- 034쪽 16 ⑤ 17 ①
- 035쪽 18 ① 19 ②
- 036쪽 20 ㄹ → ㄴ → ㄷ → ㄱ → ㅈ → ㅊ

01 이 대화에서 두 학생은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의 분야를 정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읽을 책의 범위를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분야로 좁히고 있다.

02 두 학생은 모둠에서 읽을 책을 선정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의 범위를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분야로 좁히고 있다. 그러나 두 학생이 여학생의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03 이 모듬은 국어 시간에 환경에 관한 책을 읽기로 하였다

04 (2)의 대화에서는 모듬의 학생들이 읽을 책을 어떻게 고를지, 즉 책을 선정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05 (2)에서는 모듬에서 읽을 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③은 (2)의 대화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06 '나라'가 '지민'이 추천한 책을 반대한 이유는 책에 어려운 낱말과 개념이 너무 많아 자신들의 수준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7 읽을 책을 선정할 때는 자신의 관심 분야, 읽기 수준, 읽기 목적 등을 고려하여 책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책의 분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책을 고를 때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08 책을 선정할 때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학생들이 책 읽기에 흥미를 잃을 수 있고, 책 읽기가 지루한 것이라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책을 선정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 내용을 꼭 외워야 할 필요는 없다.

09 책의 전체 쪽수를 확인하고, 책을 읽을 기간, 책을 읽는 속도, 모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책 읽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읽을 책을 선정한 날짜는 책 읽기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점이 아니다.

10 책을 읽을 때는 그날그날 읽은 부분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일지를 작성하면 독후감이나 서평을 쓸 때 도움이 되고,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11 '정우'는 도시의 밤 조명 때문에 원래 낮에만 우는 매미가 밤에도 울게 되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12 책의 크기나 가격에 대한 정보는 일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아니다.

13 책을 읽으며 일지를 작성하면, 책을 다 읽은 뒤에도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일지를 바탕으로 독후감이나 서평을 쓸 수도 있다.

14 '정우'네 모듬에서는 '불야성'에 대한 『표준 국어 대사전』 정보, 빛 공해와 관련한 텔레비전 뉴스 영상물, 인공조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인터넷 의협신문 누리집의 정보를 찾아보았다.

15 '정우'네 모듬처럼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으면 낯선 낱말이나 모르는 개념, 더 알고 싶은 내용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16 자료의 출처로 보아 모듬은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17 '사이버 불링'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 나르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

18 책을 읽은 후 책 읽기 경험을 나누기 위한 질문이므로, 책을 구입한 방법을 묻는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19 책을 함께 읽고 그 경험을 나누면, 자신만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0 책을 읽을 때에는 가장 먼저 읽을 책의 분야를 정하고, 책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읽을 책을 선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읽기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는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는 책 읽기 경험을 나누면서 감상의 폭을 넓힌다.

안축 파일

본문 037쪽

- ① 서점 ② 인터넷 ③ 기억 ④ 일지 ⑤ 개념 ⑥ 즐거움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38쪽

- 01 ① 02 책의 차례와 내용을 직접 훑어볼 수 있어서 고르기 쉽다. 03 ③ 04 ④ 05 ③

- 01 (가)의 '나라'와 '정우'는 최근의 관심사인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정우'는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분야의 책을 읽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 02 서술형 '정우'는 서점에 가면 책의 차례와 내용을 직접 훑어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고르기 쉬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03 (나)는 책을 고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이 대화를 마친 후 학생들은 각자 정한 방법으로 책을 고를 것이다.
- 04 위와 같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능동적인 책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④는 책 읽기 경험을 나눌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이다.
- 05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관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책을 읽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다.

어휘력 키우기

본문 039쪽

- 1 ②

- 1 '부산했다'는 급하게 서두르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어수선했다는 뜻으로 빈 운동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본문 040~042쪽

- 01 ⑤ 02 은유법, 의인법 03 ①, ④ 04 ② 05 ④
06 ① 07 ② 08 ②, ③ 09 ② 10 ①, ⑤ 11 깨끗하고 그칠 때가 없는 '물'의 특징으로 보아, '물'은 정직하고 청렴한 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12 ③ 13 ③
14 '지민'이 고른 책에 어려운 낱말과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15 ⑤ 16 ①

- 01 (가), (나)는 시이다. 시의 언어에는 사전적 의미 외에도 시인이 의도적으로 부여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02 서술형 '밤하늘은/별들의 운동장', '빗나간 야구공 하나'에는 은유법이,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진다. / 운동회를 벌였나/아득히 들리는 함성,'에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 03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진다.'에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고, '아득히 들리는 함성,' '먼 곳에서 이슬푸레 빈 우레 소리 들리더니'에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8~10행에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이 모두 나타난다.

- 04 (나)에서는 고양이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봄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1연(봄의 향기)과 3연(봄의 줄음)은 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2연(봄의 불길)과 4연(봄의 생기)는 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05 '고양이의 털'에서 '봄의 향기'를, '고양이의 눈'에서 '봄의 불길'을, '고양이의 입술'에서 '봄의 줄음'을, '고양이의 수염'에서 '봄의 생기'를 떠올렸다.

- 06 ㉠은 은유법을 활용하여 밤하늘에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 07 (가)에서는 상징적 시어와 이러한 상징적 시어들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비유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08 (가)에서는 '-자'로 끝나는 청유형 문장을 반복하여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듣는 이의 공감과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 09 '진눈깨비, 바람, 깊고 붉은 상처'는 부정적 의미의 시어이고, '함박눈, 편지, 새살'은 긍정적 의미의 시어이다.

- 10 ㉠, ㉡에는 모두 상징이 사용되었다.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등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상징을 활용하면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작품 해석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 11 고난도 서술형 (나)에서 '물'은 깨끗하고 그칠 때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이 상징하는 삶의 태도는 '정직하고 청렴한 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평가 목표	시에 나타난 상징 알아보기
채점 기준	✓ 물이 상징하는 태도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상]
	✓ 물이 상징하는 태도를 <조건> 중 한 개만 맞게 쓴 경우 [중]
	✓ 물이 상징하는 태도를 <조건>에 맞지 않게 쓴 경우 [하]

- 12 (가)에서 '정우'는 서점을, '나라'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준서'는 사서 선생님께 책을 추천 받을 계획이며, '지민'은 인터넷 블로그의 서평을 검색해 볼 것임을 알 수 있다.

- 13 감정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나)의 대화와 관련이 없다.

- 14 서술형 (나)에서 '나라'는 '지민'이 고른 책에 어려운 낱말과 개념이 너무 많아서 자신들에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였다.

- 15 책을 읽으며 모르는 개념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도서관이나 인터넷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제시된 자료는 책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다룬 것으로, 책의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 찾은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 16 책 읽기 경험을 나눌 때에는 책의 제목이나 표지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 책을 고른 뒤의 생각이나 감정, 책의 내용 중 인상적인 부분,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책을 읽은 후 알게 된 점과 느낀 점, 책을 읽은 후에 바뀐 생각 등을 질문할 수 있다. ㉠은 책 읽기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질문과 거리가 멀다.

2 헤아려 읽고, 맞추어 쓰고

[1] 예측하며 읽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046쪽

1 (1) 의도 (2) 배경지식, 맥락 2 ② 3 끝(맺음말)

- 2 예측하며 글을 읽으면 자신의 예측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글을 더 꼼꼼히 읽을 수 있고,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글쓴이의 주장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설명하는 글의 끝(맺음말) 부분에서는 가운데(본문)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글을 마무리한다.

학습목

본문 047~051쪽

- 047쪽 제목, 차례
048쪽 첫 만남, 배경지식
050쪽 가설 검증 바이어스, 첫인상
051쪽 실제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047~051쪽

- 047쪽 01 ⑤ 02 a, b, d
048쪽 03 ③ 04 ①
049쪽 05 ④ 06 ①
050쪽 07 ②, ⑤ 08 ⑤
051쪽 09 ⑤

- 01 '나라'는 책의 제목과 표지를 활용해 책의 내용을 예측하였다.
- 02 ㉠은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글쓴이가 책을 쓴 의도를 예측한 것이다. 이러한 읽기 방법은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용을 오래 기억하는 데 효과적이다.
- 03 (가)에서 사람들은 첫인상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전화나 전자 우편을 통한 만남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나)에 사람들이 첫인상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상대의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나)에서 첫인상을 형성할 때, 상대의 얼굴 생김새, 체격, 키 등의 겉모습과 몸짓, 말투 등의 정보를 사용한다고 하였지만 이 중에서 말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는 않았다.
⑤ (나)에서 첫인상만으로 상대의 성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린다고 하였다.
- 04 ㉠은 글의 내용을 예측한 것으로 '나라'가 머릿속에 들어 있는 배경지식을 활용한 것이다.
- 05 (라)에서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에 사람들이 첫인상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06 단호하고 단정적인 어조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알 수 있다.
- 07 ㉠은 글에 나타난 정보와 읽기 맥락을 활용하여 이어질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 08 사람들은 상대의 혈액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성격이나 행동만을 의도적으로 수집하여 혈액형이 성격과 관련 있다고 믿는데, 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다.
- 09 글쓴이는 (자)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본문 047~051쪽

- 049쪽 (1) 부합 (2) 잣대 (3) 입증
050쪽 (1) ○ (2) ×

학습 활동

본문 052~058쪽

- 이해 가설 검증 바이어스, 혈액형 성격학, 첫인상, 글쓴이, 배경지식
적용 주장, 상승, 자원, 기후 변화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52~058쪽

- 052쪽 01 ③ 02 가설 검증 바이어스
053쪽 03 ① 04 글쓴이, 의도(목적, 이유)
054쪽 05 ⑤
055쪽 06 ④ 07 ③
056쪽 08 ④
057쪽 09 ⑤
058쪽 10 녹색 성장

- 01 이 글의 처음에서는 첫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가운데에서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과 그에 관한 사례가, 끝에서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위험성과 글쓴이의 당부가 드러난다.
- 02 이 글의 제재인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이다.
- 03 ㉠은 책의 제목과 표지에 드러난 정보를 활용하여 책의 내용을 예측한 것이고, ㉡은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 04 ㉠은 글쓴이가 해 온 활동을 보고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예측한 것이다.
- 05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을 활용하여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를 예측한 내용이다.
- 06 예측하며 읽기의 효과에 대해 나눈 대화이다. 예측하며 글을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집중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다.

07 글의 서두에 질문을 던져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지만 독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답 풀이 ①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더위와 기후 변화이다.

② 이 글은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④ 미국 국립 해양 대기청과 미국 국립 항공 우주국의 통계 자료는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 하지는 글쓴이의 주장에 신뢰를 더하고 있다.

⑤ ‘역대 가장 더웠던 연도 순위’ 그래프, ‘지구 생태 용량 과잉의 날’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08 상승 추세를 보이는 지구의 연평균 기온 그래프를 통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9 ⑤는 글쓴이가 해 온 활동을 보고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를 예측하고 있다.

10 이 글은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변화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압축 파일

본문 059쪽

① 의도 ② 배경지식 ③ 영향 ④ 기억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60~061쪽

01 ③ 02 ⑤ 03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이다. 04 ③ 05 ④ 06 ④ 07 ②

01 이 글은 사람들이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좋은 첫인상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02 자신이 직접 본 방송 내용을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은 배경지식을 활용한 읽기의 예에 해당한다.

03 서술형 이 글의 주제는 (라)의 마지막 문장에 드러나 있다.

04 ‘아예 무시해 버린다.’, ‘제멋대로 확신해 버린다.’와 같은 표현에서 글쓴이가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글쓴이가 비판적 시각으로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대한 내용을 전개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05 (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미국 국립 해양 대기청과 미국 국립 항공 우주국의 분석 자료이고, (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국제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측정한 자료이다. 이처럼 이 글에는 다른 나라나 국제 단체의 분석 및 연구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만,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기

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답 풀이 ① (나)에서 전 세계가 기후 변화 문제로 허덕이고 있다고 하였다.

② (가)에서 1880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2015년이 가장 더웠던 해로 분석되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애쓰고 있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글쓴이는 더위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우리의 관심이 적음을 지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기후 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6 (다)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량과 그 증가량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다.

07 <보기>는 글쓴이의 관심사와 그동안 해 온 활동 즉,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글의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2] 통일성 있는 글 쓰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062쪽

1 통일성 2 ④ 3 (1) 서론 (2) 결론 (3) 본문

1 글의 통일성에 대한 설명이다.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2 <보기>는 통일성 있는 글을 쓰는 과정 중에서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이다.

학습 활동

본문 063~071쪽

이해 (나), 설명, (다), 경제, (다), (라)
적용 주장, 원인

학습곡

본문 063~071쪽

063쪽 통일성
068쪽 생성, 개요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63~071쪽

063쪽 01 ⑤ 02 ① 064쪽 03 ① 04 ⑤
065쪽 05 ③ 066쪽 06 ③
067쪽 07 ② 08 ① 068쪽 09 (다) 10 ①
069쪽 11 ④ 12 ④ 070쪽 13 ② 14 ①
071쪽 15 ③

01 (가)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아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 02 (나)는 '오빠와 나는 사이가 좋다.'라는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오빠가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자신을 데리러 온 일화를 중심으로 글을 쓰고 있다.
- 03 표에 제시된 내용으로 보아 '정우'는 친구들에게 독도에 대해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4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운 후에는 내용을 생성해야 한다. 그 이후에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한 내용을 고쳐 쓴다.
- 05 주제를 고려할 때, ③은 불필요한 자료이다.
- 06 '가운데 1. 독도의 지리'의 하위 항목으로 '독도의 위치와 구성'이 추가되는 것이 좋다(ㄱ). '가운데-2-라. 독도를 관광하는 방법'은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적으므로 삭제해야 한다(ㄴ). '가운데-1-나. 경제적 가치'는 '독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가운데-3.'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ㄷ).
- 07 이 글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 환경·생태학적 가치, 위치적 가치 등 '독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08 독도 강치는 예전에는 살았지만, 일제 강점기 때 무자비한 포획으로 멸종되어 이제는 박제로밖에 볼 수 없다.
- 09 이 글은 '독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다)는 '독도에 살았던 강치'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단이다.
- 10 (나)의 중심 내용은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로, ㉠은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삭제하는 것이 좋다.
- 11 자료 수집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해야 하는 활동이다.
- 12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현실'이라는 주제를 고려할 때 ④가 가장 적절하다.
- 13 '기부 단체에 대한 불신'은 내용상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에 해당하므로 ㄴ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4 통일성은 글의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은 글이 통일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과 거리가 멀다.
- 15 <보기>는 글을 쓴 후 평가하기 단계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압축 파일

본문 072쪽

- ① 주제 ② 계획 ③ 조직 ④ 삭제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73~074쪽

-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③ 06 "그리고 독도는 서쪽으로는 한반도,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과 남쪽으로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문장을 (라)로 옮겨야 한다. 07 ①

- 01 글의 중심 내용이 담기는 가운데 부분의 내용으로 보아 이 개요는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알리기 위한 글을 쓰고자 조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02 <보기>는 독도와 관련된 근대 이전의 기록에 대한 내용이므로 '가운데-2. 독도의 역사'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03 '독도를 관광하는 방법'은 글의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 04 이 글은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 05 (가)에서 독도 주변에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현재는 독도 강치가 멸종되었고 박제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독도에서 볼 수 있는 희귀 생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④ (가)에서 독도 주변의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이기 때문에 겨울과 봄에는 명태 어장이, 여름과 가을에는 오징어 어장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독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 06 **서술형** "그리고 독도는 서쪽으로는 한반도, 북쪽으로는 러시아, 동쪽과 남쪽으로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문장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가)의 중심 내용과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독도의 위치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 07 (다)는 독도의 가치와 무관한 내용이므로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삭제해야 한다.

어휘력 키우기

본문 075쪽

1 ⑤

- 1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⑤와 같이 두 대상을 비교할 때는 '다르다'를 사용해야 한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본문 076~078쪽

- 01 ①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④ 07 ③ 08 ② 09 ② 10 ④ 11 (나)는 '찾아가는 독도 사진전'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로,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설명하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활용할 수 없다.
12 ② 13 ②

- 01 (가)의 중심 내용은 '첫 만남이 중요한 이유'이다. 사람들이 처음에 형성된 인상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만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02 (라)에서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A형의 예를 든 것이므로 다른 혈액형의 성격도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이 독자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한 것이다.

③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구조를 예측한 것이다.

④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낱말의 뜻을 예측한 것이다.

⑤ 글에 나타난 정보와 읽기 맥락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과 태도를 예측한 것이다.

03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되는 근거가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혈액형 성격학'에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04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라는 글의 제목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려는 글쓴이의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

05 (다)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한 문단이다. 그런데 제시된 내용은 (다)의 '가설 검증 바이어스'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포함되면 글의 통일성을 해치게 된다.

06 ㄴ은 이 글이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한 것이고, 나머지는 글의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07 (다)에서 우리가 기후 변화 문제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더위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하였다.

08 (나)에서는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과 그 증가량이 심각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고, (다)에서는 기후 변화 문제와 대책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나)와 (다) 사이에는 상반되는 내용을 이룰 때 사용하는 '그런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9 글의 통일성에 대한 설명이다. 통일성 있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10 (가)를 보고 글의 분량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11 **고난도 서술형** (나)의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그 내용이 (가)에서 쓰려고 하는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지 판단해 본다.

평가 목표	통일성 있게 글의 내용 생성하기
채점 기준	✓(나)를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까지 밝혀 쓴 경우 [상]
	✓(나)를 활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못한 경우 [중]
	✓(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하]

12 이 글은 독도의 환경과 생태가 갖는 특징과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13 제시된 글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한다는 독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은 독도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글의 중심 내용과 반대되므로 삭제해야 한다.

3 재미있는 낱말 탐험

[1] 품사의 종류와 특성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082쪽

1 품사 2 ① 3 (1) × (2) ○ (3) × (4) ○

1 품사는 낱말을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다.

2 품사 분류의 기준에는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3 (1) 낱말은 그 형태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말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로 나뉜다.

(3)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학습 활동

본문 083~096쪽

084쪽 달리다, 설악산, 구름, 매우

085쪽 예쁘다

086쪽 사탕, 우정

087쪽 연못가, 하나, 둘째

088쪽 심다, 새하얗다

089쪽 읽었다, 가늘었다, 맛있게, 핀, 형용사

090쪽 치우자, 맑다, 형용사

091쪽 (나), 모든, 깜짝, 모든, 깜짝

092쪽 어떤, 아주, 체언, 꾸며 주는

093쪽 주체, 대상 094쪽 아, 네

학습곡

본문 083~096쪽

085쪽 형태, 기능, 의미, 이름, 움직임

088쪽 이름, 대명사, 순서

090쪽 움직임, 형용사, 없다

092쪽 관형사, 용언

093쪽 조사, 체언 094쪽 놀람, 독립적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83~096쪽

084쪽 01 ① 02 피하려고, 들어갔다 03 ③

085쪽 04 ⑤ 05 ⑤

086쪽 06 ② 07 ⑤ 08 ②

087쪽 09 ④ 10 수사 11 ⑤

088쪽 12 ⑤ 13 ④

089쪽 14 ③ 15 ③ 16 ④

090쪽 17 활용 18 ①, ⑤

091쪽 19 수식언 20 ③

092쪽 21 ① 22 ③

093쪽 23 네 개 24 ② 25 ②

094쪽 26 ④ 27 ③

095쪽 28 ⑤ 29 ⑤ 096쪽 30 ②

01 '설악산'은 문장에서 어느 위치에 쓰이든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⑤ '기쁘다', '달리다', '흔들다', '예쁘다'는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기쁘서', '기쁘니', '달리고', '달리며', '흔들고', '흔드니', '예쁘고', '예뻐서'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한다.

02 '피하려고(피하다)'는 '피하고, 피하니, 피해서', '들어갔다(들어가다)'는 '들어가고, 들어가니, 들어가서'와 같이 문장에서 쓰일 때 그 형태가 변한다.

03 기능에 따른 품사 분류란 낱말이 문장에서 쓰일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04 '꽃', '구름', '풍경', '설악산'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인 명사에 해당한다. '기쁘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인 형용사에 해당한다.

05 낱말은 형태, 의미, 기능에 따라 나눌 수 있다.

06 '갑자기'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낱말이다. '오후', '비', '집', '걱정'은 모두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이다.

07 '우정'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손', '우산', '가방', '사탕'은 모두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08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이름을 나타내는 말은 명사이다.
③ 대명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④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말은 수식언이다.
⑤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주로 주어, 서술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말은 용언이다.

09 '거기'는 앞에 나온 '공원'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지석', '공원', '운동'은 명사이며, '같이'는 뒤에 오는 '운동할까'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0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품사는 '수사'이다.

11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둘', '다섯', '스물', '하나'는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12 ⑤는 다른 낱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관형사와 부사)에 대한 설명이다.

13 밑줄 친 낱말은 형태가 변하는 용언으로, '먹었는데'의 기본형은 '먹다'이다.

14 '심으셨다(심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높고(높다)', '즐겁게(즐겁다)', '가늘었다(가늘다)', '새하얗다'는 모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한다.

15 제시된 낱말은 모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16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으며(ㄱ), 용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어, 서술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한다(ㄴ).

17 용언이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18 형용사는 명령을 나타내는 '-어라/-아라', 청유를 나타내는

'-자'를 붙여 활용하면 어색하다. '맑다'와 '깨끗하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맑아라', '맑자', '깨끗하라', '깨끗하자'와 같이 활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잡다', '얹다', '치우다'는 모두 동사로, '잡아라', '잡자', '얹아라', '얹자', '치워라', '치우자'와 같이 '-어라/-아라'와 '-자'를 붙여 활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9 문장에서 쓰일 때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낱말은 수식언이다. 수식언에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와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가 있다.

20 '들었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용언에 속한다.

▶오답 풀이 ① '모든'은 뒤에 오는 체언 '학생'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② '번쩍'은 뒤에 오는 용언 '들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④ '무슨'은 뒤에 오는 체언 '일'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⑤ '깜짝'은 뒤에 오는 용언 '놀라셨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21 '영금영금'은 뒤에 오는 동사 '기어간다'를 꾸며 주므로 부사에 속한다. '현', '어떤', '아무런', '두'는 각각 뒤에 나오는 체언인 '가방', '가수', '말', '사람'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에 해당한다.

22 관형사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한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며 때에 따라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23 '는', '에', '과', '을'이 조사에 속하므로 조사는 모두 네 개이다.

24 ②에서 '팔기도'의 '도'는 '역시'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선혜'의 '가'는 '선혜'를 문장의 주어로 만들어 주는 주격 조사이고, '책'의 '을'은 '책'을 목적으로 만들어 주는 목적격 조사이다.
③ '어린이'의 '가'는 주격 조사이고, '공원에서'의 '에서'는 '공원'을 부사어로 만들어 주는 부사격 조사이다.
④ '주상이와'에서 '와'는 '주상이'와 '민석이'를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고, '민석이'의 '가'는 '주상이와 민석이'를 주어로 만들어 주는 주격 조사, '친구'의 '이다'는 '친구'를 서술어로 만들어 주는 서술격 조사이다.
⑤ '다인이'에서 '가'는 주격 조사, '나에게'의 '에게'는 부사격 조사, '공을'의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25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으며 주로 체언 뒤에 붙어 쓰인다.
③ 조사 중에는 '도', '만', '까지', '조차' 등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가 있는데, 이를 보조사라고 한다.
④ 조사는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⑤ 서술격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와 달리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26 감탄사는 다른 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문장의 처음, 중간, 끝 어디에도 올 수 있다.

27 ①의 '여보세요', ②의 '네', ④의 '이런', ⑤의 '야'는 감탄사이다. ③에는 감탄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 28 '당신의'에서 '의'와 '얼굴이'에서 '이'는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이다.
- 29 '웃게(웃다)'는 '웃는다, 웃어라, 웃자'와 같이 활용이 가능한 동사이다.
- 30 '아파서(아프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아껴(아끼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에 해당한다. '아까운(아깝다)', '아담하게(아담하다)', '아쉬웠다(아쉽다)', '아린다(아리다)'는 모두 형용사에 해당한다.

압축 파일

본문 097쪽

- ① 기능 ② 이름 ③ 대명사 ④ 수사 ⑤ 수식언
⑥ 용언 ⑦ 조사 ⑧ 체언 ⑨ 독립언 ⑩ 동사

한글의 한 곳

본문 098~099쪽

- ① 하늘, 무척, 너, 는, 정말, 앓, 도토리, 하나, 현, 옷, 을, 새, 처럼, 네, 여기, 에 ② 푸르다, 부지런하구나, 떨어졌네, 고쳐 ③ 하늘, 너, 도토리, 하나, 옷, 여기 ④ 는, 을, 처럼, 에 ⑤ 앓, 네
⑥ 무척, 정말, 현, 새 ⑦ 떨어졌네, 고쳐 ⑧ 푸르다, 부지런하구나 ⑨ 하늘, 도토리, 옷 ⑩ 너, 여기 ⑪ 하나 ⑫ 현, 새 ⑬ 무척, 정말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100~101쪽

- 01 ④ 02 ① 03 ③ 04 ㉠: 형태, ㉡: 주어 05 ④
06 ⑤ 07 ① 08 ② 09 ① 10 동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다/-ㄴ다', 명령을 나타내는 '-어라/-아라', 청유를 나타내는 '-자'를 붙여 활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할 수 없다.
11 ② 12 ⑤ 13 ③ 14 ⑤ 15 ① 16 ②

- 01 우리말의 품사는 공통적인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의 아홉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 02 '기쁘다'는 '기쁘고, 기쁘니, 기쁜'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하고, '걸다'는 '걸고, 걸으니, 걸는' 등과 같이 형태가 변한다.
- 03 의미를 기준으로 할 때, '기쁘다'는 형용사, '매우'는 부사, '한 라산'과 '구름'은 명사, '걸다'는 동사에 속한다.
- 04 **서술형** '그'는 대명사, '우산'은 명사, '하나'는 수사로 모두 체언에 속한다. 체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주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
- 05 '사랑'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이다. '우정', '걱정', '추억', '행복'은 모두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이다.
- 06 ㉡의 '여기'는 '언뜻가'를 대신하는 말이므로 대명사이다.

- 07 밑줄 친 부분은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수사에 속한다. '셋'은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다.

오답 풀이

- ② '나무'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③ '그녀'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④ '까치'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이다.
⑤ '온갖'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 08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이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에 속한다.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 주로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 09 '부른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용언에 속한다. '나 못가지'는 명사이므로 체언에, '깨서'는 조사이므로 관계언에, '다'는 부사, '온'은 관형사이므로 수식언에 속한다.

- 10 **서술형** '먹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예쁘다'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먹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다/-ㄴ다', 명령을 나타내는 '-어라/-아라', 청유를 나타내는 '-자'를 붙여 활용할 수 있지만, '예쁘다'는 할 수 없다.

- 11 '모든'은 뒤에 오는 명사 '학생'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깜짝'은 뒤에 오는 동사 '놀라셨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수식언에 속하며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수식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말은 용언이다.
③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은 체언이다.
④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관계언이다.
⑤ 다른 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은 독립언이다.

- 12 ⑤에는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부사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동사 '기어간다'를 꾸며 주는 '엇금엇금'이 사용되었다.
② 부사 '많이'를 꾸며 주는 '아주'와 동사 '내렸다'를 꾸며 주는 '많이'가 사용되었다.
③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과연'이 사용되었다.
④ 동사 '피었다'를 꾸며 주는 '활짝'이 사용되었다.

- 13 ③에서 '보는'은 동사의 어간 '보-'에 어미 '-는'이 붙은 활용형이다.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는다. ⑤의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 14 감탄사는 느낌이나 놀람, 부름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낱말로, 생략해도 문장의 뜻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꿈'은 명사이다.

- 15 ㉠의 '이런'은 다른 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이다. ㉡의 '이어서'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다.

- 16 '어떤'은 뒤에 오는 명사 '꽃'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좋아할까(좋아하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오답 풀이

- ①, ③, ④, ⑤ 이 문장에 사용된 품사는 명사(진희, 꽃), 조사(가, 을), 관형사(어떤), 부사(가장), 동사(좋아할까)로 총 다섯 개이다.

[2] 어휘의 체계와 양상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102쪽

- 1 고유어-무지개, 한자어-학교, 외래어-피아노 2 방언
3 ②

- 1 '무지개'는 순우리말이므로 고유어이고, '학교(學校)'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인 한자어이며, '피아노(piano)'는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인 외래어이다.
- 2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용 집단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를 방언이라고 한다.
- 3 '납기'는 '나무'의 지역 방언이다. 나머지 말들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학습 활동

본문 103~113쪽

- 103쪽 지우개, 색연필, 초콜릿
- 104쪽 쌀
- 105쪽 색깔, 호감, 심정, 한자어
- 106쪽 외국
- 107쪽 매우
- 108쪽 비공식적, 지역 방언
- 110쪽 음악
- 111쪽 친밀감, 의사소통, 속어
- 112쪽 정체성
- 113쪽 줄인 말, 생일 선물

학습목

본문 103~113쪽

- 106쪽 고유어, 우리말, 보완, 정체성
- 111쪽 지역, 표준어, 사회 방언, 은어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103~113쪽

- 103쪽 01 한자어 02 ④ 03 ④
- 104쪽 04 ③ 05 ③
- 105쪽 06 ③ 07 ④
- 106쪽 08 ③ 09 ①
- 107쪽 10 지역 방언 11 ② 12 ④
- 108쪽 13 ① 14 ③
- 109쪽 15 ③ 16 ⑤ 17 세대(의) 차이
- 110쪽 18 ③ 19 ②
- 111쪽 20 ㉠: 은어, ㉡: 속어 21 ③
- 112쪽 22 ④ 23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 113쪽 24 ③

- 01 어종(말의 뿌리)에 따른 어휘의 유형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다.

- 02 '두유(豆乳)'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 03 '시나브로'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을 지닌 고유어이다.

- 04 밑줄 친 부분을 통해 고유어는 색깔의 정도나 느낌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색채어가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05 <보기>는 고유어에 농사와 관련된 말이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는 고유어에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인 농경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06 고유어는 옛날부터 쓰였고, 지금도 널리 쓰인다. 한자어나 외래어에 밀려 사라진 말이 있기는 하지만 고유어가 거의 사라진 것은 아니다.

- 07 <보기>에서 한자어 '의향', '호감'이 고유어 '마음'보다 분화된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 쓸 때보다는 ㉡과 ㉢으로 쓸 때 뜻이 더 정밀해진다.

▶오답 풀이 ① '마음'은 문맥에 따라 '의향', '호감', '심정' 등 여러 의미로 쓰인다.

② '마음'은 고유어이고, '의향(意向)'과 '호감(好感)'은 한자어이다.

③ '여행 갈 호감은 있니?', '나는 그 사람에게 의향이 있어.'로 바꾸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⑤ '의향'과 '호감'은 '마음'이라는 낱말보다 뜻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08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로 굳어져 사용되는 말로, 대응되는 고유어가 없는 경우가 많다.

- 09 외래어는 한자어를 제외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다. 백반증(白班症)은 한자어이다.

- 10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한다.

- 11 ①, ③, ④, ⑤는 모두 '표준어-지역 방언'의 관계이나 ②는 '고유어-한자어'의 관계이다.

- 12 <보기>의 낱말들은 모두 '나무'를 뜻하는 말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인 지역 방언에 해당한다.

- 13 지역 방언은 주로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14 문학 작품에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잘 담아내어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를 더욱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 15 지역의 차이에 의해 생긴 방언은 지역 방언이다.

- 16 '오폐리빌리티'는 '수술 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주로 의학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⑤가 직업에 따른 어휘의 차이를 보여 주는 예이다.

▶오답 풀이 ① '오빠'와 '형'은 성별에 따라 호칭이 달라진 말이다.

② '친구'와 '벗'은 뜻이 비슷한 낱말이다.

③ '동생'과 '아우'는 뜻이 비슷한 낱말이다.

④ '찌꺼'는 '조금'의 지역 방언이다.

- 17 '문상'은 '문화 상품권'의 줄인 말로, 청소년 세대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다.
- 18 '느낌'은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감정'을 뜻하는 말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 19 전문어는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는 말이다. 전문어는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정밀한 뜻을 지니고 있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0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의 구성원끼리만 쓰는 말을 은어,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을 속어라고 한다.
- 21 제시된 낱말들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어이다.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은 전문어이다.
- 22 ④는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말을 바르게 고친 예이다.
- 23 '아이스 아메리카노', '레귤러 사이즈', '테이크 아웃', '템블러'는 외래어이다. '아이스', '레귤러 사이즈', '테이크 아웃', '템블러'는 고유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다.
- 24 제시된 단어는 '인터넷 강의', '열심히 공부하다', '생일 선물'의 줄인 말이다. 이들은 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이므로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②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 방언이다.
④, ⑤ 어법에 맞게 줄인 말도 표준어도 아니므로 제시된 낱말을 모르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압축 파일

본문 114쪽

- ① 고유어 ② 한자 ③ 지역 방언 ④ 세대 ⑤ 표준어
⑥ 전문어 ⑦ 비밀 유지 ⑧ 친밀감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115~116쪽

- 01 ④ 02 ④ 03 색깔을 표현하는 말(색채어)이 발달하였다. 04 ② 05 ② 06 ⑤ 07 ② 08 ④ 09 ②
10 ④ 11 ① 12 ③ 13 ② 14 손녀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또래 사이에서 쓰는 줄인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01 '고유어-한자어-외래어'는 어종(말의 뿌리)에 따라 낱말을 분류한 것이다.
- 02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낱말이 많은 것은 한자어의 특성이다.
- 03 **서술형** <보기>는 '붉다'와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들로, 이를 통해 고유어에는 색의 정도나 느낌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색채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04 ㉠은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 ㉡은 ' 좋게 여기는 감정'이라는 뜻이다.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과 ㉡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05 '명상(冥想), 기억(記憶), 고려(考慮), 추측(推測)'은 모두 한자어이다. '생각'은 고유어에 해당한다.
- 06 <보기>는 모두 외래어이다.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와 우리말로 굳어져 사용되는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다.
- 07 <보기>는 외래어를 남용한 예이다.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우리말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외래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외국어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08 '안습'은 안타까움을 뜻하는 은어로 사회 방언의 예이고, '토크'는 '토키'를 귀엽게 이르는 사투리로 지역 방언의 예이다.
- 09 ㉡은 고향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 상황이므로 지역 방언을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 10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어머니'와 같이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여성은 해요체를 남성은 하십시오체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11 ㉠은 직업에 따른 사회 방언의 예이다. ㉠과 대응하는 일반 어휘는 ㉡이다.

오답 풀이 ② ㉠은 외래어이고, ㉡은 한자어이다.

③ ㉠과 ㉡은 직업에 따른 사회 방언의 예이다.

④ 의학 분야 이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⑤ ㉠은 의학 분야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전문어로,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 12 제시된 낱말들은 심마니들이 사용하는 은어이다. 은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특정 집단의 구성원끼리만 사용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은 한자어, ②는 외래어, ④, ⑤는 속어에 대한 설명이다.

- 13 <보기>에서 설명하는 어휘는 속어이다.

- 14 **서술형**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데, 이는 손녀와 할아버지의 세대에서 사용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손녀가 할아버지를 상대로 자기 또래 사이에서 쓰는 줄인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휘력 키우기

본문 117쪽

1 ②

- 1 옷을 두껍지 않게 입었다는 의미이므로 '얇게'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긴 물체인 실의 굵기나 너비가 머리카락보다 얇거나 좁다는 의미이므로 '가늘구나'가 옳은 표현이다.

③ '굵고'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늘고'가 옳은 표현이다.
④ 마당에 눈이 두께가 두껍지 아니하게 깔렸다는 의미이므로 '얇게'가 옳은 표현이다.

⑤ 밀가루 반죽을 두께가 두껍지 아니하게 밀었다는 의미이므로 '얇게'가 옳은 표현이다.

-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 체언-수사, ㉡: 수식언-관형사 06 ④ 07 ② 08 ⑤ 09 ① 10 ② 11 ④ 12 ④ 13 고유어: 여름, 바람 / 한자어: 작년, 친구, 기분 / 외래어: 버스, 케이블카 14 ③ 15 ① 16 ⑤ 17 ② 18 ④ 19 ⑤ 20 '싱크페이션, 알라 브레베, 레가토, 세뇨' 등 음악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이는 전문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01 ㉠에는 형태, ㉡에는 기능, ㉢에는 용언, ㉣에는 부사, ㉤에는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
- 02 체언에 속하는 낱말은 '민아', '우리', '반', '마음씨'로 모두 네 개이다.
- 03 ④의 '저'는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이다.
- 04 '우정', '걱정', '건강', '추억'은 추상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이고, '가방'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구체 명사이다.
- 05 ㉠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므로 체언에 속하고, ㉡은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므로 수식언에 속한다.
- 06 '매콤한'은 형용사 '매콤하다'의 활용형이므로 용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오늘'과 '점심'은 명사이므로 체언에 속한다.
 ③ '아주'는 부사이므로 수식언에 속한다.
 ⑤ '떡볶이이다'는 명사인 '떡볶이'와 서술격 조사인 '이다'가 합쳐진 말이다.
- 07 동사 뒤에는 현재형 어미 '-는다/-는다',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가 모두 붙을 수 있으나 형용사에는 모두 붙을 수 없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잡다', '웃다'는 활용형이 자연스러우나 '맑다', '곱다'는 활용형이 어색하다. 따라서 '잡다', '웃다'는 동사, '맑다', '곱다'는 형용사이다.
- 08 부사 '많이'는 뒤에 오는 동사 '내렸다'를 꾸며 준다.
오답 풀이 ① 이 문장에서 관형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② 이 문장에는 '분명히', '아주', '많이' 총 세 개의 수식언이 사용되었다.
 ③ '아주'는 부사인 '많이'를 꾸며 준다.
 ④ '분명히'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 09 '그'는 명사 '여자'를, '한'은 명사 '송이'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여자'와 '꽃', '송이'는 명사, '느'와 '를'은 조사, '샀다'는 동사이다.
- 10 '가'와 '를'의 자리를 서로 바꾸면 '정우를 나라가 부른다.'가 되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 11 '어머'는 놀람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다.
오답 풀이 ①의 '너'는 대명사, ②의 '하나'는 수사, ③의 '정말'은 부사, ⑤의 '푸른'은 형용사이다.
- 12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말이지만 우리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한자어 중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있으므로 외래어와는 다르다.

- 13 **서술형** '여름'과 '바람'은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인 고유어에 해당하고, '작년(昨年)', '친구(親舊)', '기분(氣分)'은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인 한자어에 해당한다. '버스(bus)'와 '케이블카(cable car)'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인 외래어에 해당한다.
- 14 <보기>는 고유어인 '고치다'가 한자어인 '수리하다', '수선하다', '치료하다'를 포괄하고, 반대로 각 한자어는 고유어의 뜻 중 일정 영역을 담당하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한자어가 고유어에 비해 뜻이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는 특성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한자어가 고유어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어 하나에 다수의 한자어가 대응된다.
 ② <보기>만 보고 한자어의 수가 고유어의 수보다 많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④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⑤ 고유어보다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5 '여성(女性)', '피부(皮膚)', '색소(色素)', '백반증(白斑症)'은 모두 한자어에 속한다.
- 16 이 글은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농촌 마을의 현실을 생생하게 표현한 소설의 일부분이다. ㉡의 '불량배(不良輩)'는 한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말로 지역 방언이 아니다.
- 17 사회 방언은 사회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진 말이다. 다른 집단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때 사회 방언을 많이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 18 제시된 낱말은 사회 방언 중 젊은 세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은어에 속한다. ④는 전문어에 대한 설명이다.
- 19 <보기>는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보기>와 같이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가 드러나는 예는 ⑤이다.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가 발달되어서 고유어 '쌀'과 관련된 말이 발달하였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② 피겨 스케이팅 분야의 전문어로 직업에 따른 언어 차이의 예이다.
 ③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의 예이다.
 ④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의 예이다.
- 20 **고난도 서술형** <보기>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음악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이는 전문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보기>에 사용된 음악 분야의 전문어로는 '싱크페이션, 알라 브레베, 레가토, 세뇨' 등이 있다.

평가 목표	전문어의 특성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보기>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을 경우 [상]
	✓ <보기>에서 전문어를 두 개 이상 찾아 적지 않았거나, 전문어의 특성을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않았을 경우 [중]
	✓ <보기>에서 전문어를 두 개 이상 찾아 적지 않았고, 전문어의 특성을 형식에 맞게 서술하지 않았을 경우 [하]

4 갈등을 넘어 소통으로

[1] 갈등하는 삶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124쪽

1 (1) ○ (2) × (3) ○ 2 갈등 3 ②

- (2) 소설의 특성 중 서사성은 소설이 '인물, 사건, 배경' 등 소설 구성의 3요소를 갖추고 있고, 일정한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말한다.
- 문학에서 갈등은 등장인물의 마음속에서(내적 갈등) 또는 인물 사이나, 인물과 환경 사이에서(외적 갈등)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을 일컫는다.
- 나의 바람(만화가가 되고 싶은 바람)과 아버지의 바람(공무원이 되길 바람)이 대립하면서 일어난 갈등이므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에 해당한다.

[학습목]

본문 125~139쪽

- 128쪽 전기용품, 육친애, 욕심
- 130쪽 바람, 암시, 물질
- 132쪽 외적
- 135쪽 바람, 쾌감
- 138쪽 도둑놈 두목, 내적
- 139쪽 고향, 청순함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125~139쪽

- 125쪽 01 ⑤ 02 ④
- 126쪽 03 ③ 04 고등학교 교복
- 127쪽 05 ② 06 ③ 07 ⑤
- 128쪽 08 ④ 09 ③
- 129쪽 10 ⑤ 11 ① 12 ④
- 130쪽 13 ⑤ 14 꼭 내간 놔 다칠 게 걱정이 아니라 나 손해 볼 게 겁난다는 소리로 들린다.
- 131쪽 15 ② 16 ③ 17 ③
- 132쪽 18 ④ 19 ③, ④
- 133쪽 20 ⑤ 21 ③ 22 ④
- 134쪽 23 ⑤ 24 인물('수남')의 내적 갈등
- 135쪽 25 ⑤ 26 ④
- 136쪽 27 ② 28 ④ 29 ②
- 137쪽 30 ① 31 ②
- 138쪽 32 ⑤ 33 ④
- 139쪽 34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35 ③

- '수남'의 성질이 거친 것이 아니라 단골손님인 전공들의 성질이 거칠고 급한 것이다.
- '수남'은 일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 단골손님들로부터 알밤을 먹었는데, 일이 익숙해진 후에도 단골손님들은 '수남'에게 알밤을 먹이는 것으로 애정을 표시하였다.
- '수남'은 언젠가는 야학에라도 들어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주인 영감'에게 감동과 고마움을 느낀다. 그래서 적은 월급을 받고 많은 일을 하는 것에 전혀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다.
- '수남'은 고등학교 교복을 보면 심장이 감전된 것처럼 가슴이 휘저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그만큼 고등학교 교복이 '수남'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인 것이다.
- 낮에는 가게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수남'이 책을 읽거나 공부할 틈이 전혀 나지 않는다.
- '수남'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주인 영감'이 고마워, 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아이이다. 그러나 '주인 영감'이 자신을 길으로 위하는 척하며 이용할 뿐임을 알지 못하므로 눈치가 빠른 것은 아니다.
- '주인 영감'은 점원을 더 쓰면 그만큼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끼고자 '수남'을 위하는 척하며 '수남'을 혹사시키는 것이다.
- '주인 영감'은 '수남'에게 알밤을 먹이는 일이 한 번도 없었으므로 '수남'은 '주인 영감'에게 알밤을 먹을 때의 서글픔을 느끼지는 않는다.
- (아)는 소설의 구성 단계상 전개에 해당하며, 봄이 왔는데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불길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암시한다.
- 사람들은 다친 아가씨보다 애꿎은 돈을 물어야 하는 '전선 도매집 주인아저씨'를 더 동정했다. 이를 통해 도시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수남'은 장사가 잘 안되는 것에 대해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 가게 주인들은 다친 아가씨의 안부보다 '전선 도매집 주인아저씨'의 손해가 얼마인가를 궁금해하며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면모를 보인다.
- '수남'은 바람을 자연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 서울 사람들은 바람은 횡액, 먼지, 쓰레기를 불어오는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인식 차이에서 고통을 느낀다.
- 이전에 바람 때문에 간판이 떨어져 아가씨가 다친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은 아가씨의 안부보다 '전선 도매집 주인아저씨'의 손해 정도에 더 관심을 가졌다. '수남'이 '주인 영감'의 말을 고깝게 듣는 것도 자신에 대한 걱정의 말이 아니라, 사고가 나면 '주인 영감' 자신이 손해를 볼 게 겁난다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이다.

15 물건 대금을 어떻게든 받아 내려는 '수남'과 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상회 주인'의 대립, 즉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두드러진다.

16 '××상회 주인'이 '수남'에게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17 ㉔은 '주인 영감'이 한 말이 아니라 '수남'이 물건 대금을 받아 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② '은행 막는다'는 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갚는다는 말이지만 '수남'은 그 말의 정확한 뜻을 모른 채 급하게 돈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④, ⑤ '수남'에게 장사꾼은 남을 속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징그러운 족속이다. 하지만 다른 장사꾼들이 그런 식으로 물건 대금을 받는 것을 보고 '수남'도 물건 대금을 받아 내기 위해 자신이 혐오하는 장사꾼의 수법을 따라한다. 이는 '수남'이 도시 생활에 물들었음을 보여 준다.

18 '수남'은 '신사'에게 뒷덜미를 잡혔으나 어떤 영문인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다.

19 '바람'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수남'에게 불길한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바람에 '수남'의 자전거가 넘어져 '수남'과 '신사'가 갈등하는 사건의 원인이 된다.

20 '수남'의 자전거가 바람에 쓰러지며 '신사'의 차에 생채기를 냈다. 그것을 계기로 차 수리비를 받으려는 '신사'와 그처럼 큰 돈이 없는 '수남'의 갈등이 시작된다.

21 차에 난 생채기를 찾고는 팔짝팔짝 뛰는 것으로 보아 경박스러우며, 어린 '수남'에게 차 수리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야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2 자신이 울자 '신사'의 목청이 다분히 누그러지며 목소리에 연민이 담기는 것을 알아차린 '수남'이, '신사'의 동정심을 더욱 유발하기 위해 흑흑 소리까지 내며 운 것이다. '수남'의 영악스러운 면모가 드러난다.

23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는 자신의 행동을 속으로 합리화했기 때문에 달리는 그 순간에 일종의 '쾌감'을 느낀다. 이때의 '쾌감'은 자전거를 빼앗겼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던 일종의 심리적 부담감이 사라짐으로써 느낀 해방감이라 할 수 있다.

24 '신사'에게 자전거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수남'은 주변 어른들의 부추김에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게 된다.

25 '주인 영감'은 '수남'이 자동차 수리비를 물어 주는 대신 빼앗길 뻔한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온 행동에 대해 금전상의 손실을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칭찬한다.

26 '수남'은 자신이 부도덕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치지 않고, 자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지 않은 것만 기뻐하는 '주인 영감'이 마치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속으로 혐오감을 느꼈다.

27 '주인 영감'은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와 '신사'가 요구한 수리비를 전혀 묻지 않게 되어서 '수남'에게 "네놈 오늘 운 났다."라고 말했다.

28 '수남'은 '주인 영감'이 자신을 옳은 길로 이끌어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인 영감'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

29 [A]에서는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쳤을 때 쾌감을 느낀 것에 대한 '수남'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다. 이 소설에서 '수남'은 '주인 영감'과 갈등을 겪지 않는다.

30 ①은 '지는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수남'은 자신이 낮에 한 행동이 잘못임을 깨닫고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31 '수남'의 형 '수길'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물건을 가져 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들길까 봐 두려워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거나 동생들이 떠드는 것도 못 하게 막고 있다.

32 '수남'은 도둑질을 한 사실을 숨긴 형의 얼굴빛을 '누런 퐁빛 얼굴'로 기억한다. 이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형이 부도덕한 일을 한 것이 '수남'에게 충격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33 큰아들이 돈과 물건을 훔쳤다가 순경한테 끌려갔기 때문에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이다.

34 자신이 부도덕하다는 사실 때문에 갈등하던 '수남'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짐을 싣는다.

35 '수남'의 얼굴에서 '누런 퐁빛'이 가셨다는 것은 '수남'을 둘러싼 부도덕성이 말끔히 해소되었음을 뜻한다. 즉 '수남'이 내적 갈등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하였음을 나타낸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본문 125~139쪽

125쪽 (1) 떨떠름한 (2) 숙성한 (3) 우락부락한

126쪽 (1) × (2) ○ (3) × (4) ○ (5) ○

128쪽 (1) 만발 (2) 육친애 (3) 급강하

130쪽 (1) 생리 (2) 고깝다 (3) 혐오감

132쪽 (1) 날렵하게 (2) 도시 (3) 기세

134쪽 (1) ㉔ (2) ㉠ (3) ㉡

135쪽 (1) 필시 (2) 흡사 (3) 차초지중

137쪽 (1) ㉡ (2) ㉢ (3) ㉠ (4) ㉣

학습 활동

본문 141~147쪽

이해 지물쇠, 고향, 은행, 도망, 쾌감, 비판, 바람

적용 입신양명, 신분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141~147쪽

- 141쪽 01 ⑤ 02 ②
 142쪽 03 자전거를 들고 도망쳤다. 04 ⑤ 05 '주인 영감'
 143쪽 06 ⑤ 07 ③
 144쪽 08 ⑤ 09 천한 신분
 145쪽 10 ③ 11 ①, ④ 12 소인, 대감
 146쪽 13 ③ 14 ④ 15 ④
 147쪽 16 ⑤

- 01 '수남'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자동차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고향에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 02 이 글에는 '수남'과 '××상회 주인'의 갈등, '수남'과 '신사'의 갈등, '수남'의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신사'와 '주인 영감'은 직접 대면한 적이 없으며, '수남'은 '주인 영감'에게 실망을 하고 혐오감을 느끼지만 겉으로 갈등을 겪지는 않는다.
- 03 '수남'은 자동차 수리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신사'와 갈등을 겪다가, 자물쇠가 채워진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다.
- 04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수남'은 자기 내부에 숨겨져 있는 부도덕성 때문에 고민에 빠진다. 그래서 자신이 부도덕한 행동을 했음에도 금전적 손해를 막았다는 이유로 칭찬하는 '주인 영감'을 떠나,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 05 '주인 영감'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온 '수남'을 칭찬하는 부도덕적인 인물로, 도덕적인 양심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 06 '수남'은 내적 갈등을 겪었는데 ⑤가 내적 갈등에 해당한다.
- 07 이 소설은 '수남'이라는 순진한 소년이 도시에서 겪는 갈등을 통해 현대인들의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결국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수남'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도덕적 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08 「홍길동전」에는 '길동'과 적서 차별 제도라는 사회 제도와서의 갈등이 두드러진다. 이 갈등의 양상은 인물과 자연환경의 갈등이 아니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이다.
- 09 (가)에서 '길동'은 자신이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천한 신분인 서자이므로 호부호형(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름.)도 할 수 없고 출세의 길도 막혀 있음을 탄식하고 있다.
- 10 '길동'에게 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동'은 천생인 서자이기 때문에 형이 있어도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 11 '형'은 이 글에 등장하고 있지 않으며, (라)에서 '길동'은 자신의 출가 결정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있을 뿐, '어머니'와 외적 갈등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③ '길동'은 자신의 재주를 펼쳐 출세하고자 하나 서자로 태어난 운명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2 '길동'이 홍 판서의 적자였다면 '소인' 대신에 '소자'라고 자신을 칭했을 것이고, '대감'이라는 말 대신 '홍 판서'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 13 (다)에서 '길동'은 출가하는 까닭을 세상(속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까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저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14 '길동'은 뛰어난 재주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한계 때문에 입신양명할 길이 막히자 속세를 떠나기로 한 것일 뿐, 남자라고 무조건 특정 나이가 되면 출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5 '길동'이 출가한 이유는 집안과 나아가 그가 속한 사회에서 풀지 못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신분 제도 및 적서 차별의 현실에 대항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하고 집을 나온 것이다.
- 16 나와 다르다는 편견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태도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본문 144쪽

- (1) 비범하다 (2) 기박하다 (3) 배회하다

압축 파일

본문 148쪽

- ① 바람 ② 도덕 ③ 주인 영감 ④ 내적 ⑤ 자전거
 ⑥ 도망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149~151쪽

- 01 ③ 02 ⑤ 03 ⑤ 04 ① 05 ④ 06 ② 07 ②
 08 ① 09 쾌감 10 ② 11 ② 12 ① 13 ③
 14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 01 이 글의 갈래는 소설이다. ③은 일반적으로 전기문의 특징이며, 나머지는 소설의 특징에 해당한다. 소설은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이며, 인물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02 '수남'은 '주인 영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 몫의 일을 혼자 하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는다.
- 03 (마)에서 '××상회 주인'은 어떻게든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수남'은 물건 대금을 받아 내려고 장승처럼 버티고 있으므로 둘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04 (다)에서 '수남'은 강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문득 자기도 '재수 옴 붙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걱정하고 있다.

05 ㉠에는 다친 아가씨의 안부보다 치료비 액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이, ㉡에는 '수남'의 안전보다는 금전적 손해를 두려워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이 나타난다. 작가는 이를 통해 도시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06 (가)에서 '수남'이 '신사'에게 잡힌 것은 사고를 파악하고 겁이 나서 도망가려던 것이 아니다. '수남'이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가던 길을 가려던 것뿐이다.

07 '신사'는 '수남'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받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수리비를 가져올 때까지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였다.

08 어린 '수남'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신사'는 너그럽기는커녕 야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9 **서술형**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면서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기는 듯한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때의 쾌감은 이후 '수남'에게 또 다른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10 '수남'은 부모 대신으로 따르면서 육친애까지 느꼈던 '주인 영감'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하자 '주인 영감'에게서 정이 떨어진다. 결국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 후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11 (나)에서 '수남'이 갈등하는 이유는 자신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쾌감을 느꼈다는 사실 때문이다. '주인 영감'에게 혐오감을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아니다.

12 ㉠은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온 일을 칭찬하던 '주인 영감'의 얼굴빛이고, ㉡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며 쾌감을 느낀 데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민할 때의 '수남'의 얼굴빛이다. 둘 다 비양심성, 부도덕성을 상징한다.

13 서자인 '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신분에 따른 호칭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신양명하는 것이 대장부의 떳떳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입신양명이 중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나. 「홍길동전」의 배경은 조선으로, 그 당시에는 양반만 과거를 볼 수 있었으며 그들에게만 출세의 길이 열려 있었다.
 다. 유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사내들이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익히고 입신양명하고자 하였다.

14 **서술형**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은 계급이나 신분을 뛰어넘어 누구나 평등한 인권을 부여받았다고 믿었다. 그러한 작가의식이 '길동'의 말인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를 통해 드러난다.

[2] 배려하며 말하기

학습 활동

본문 152~158쪽

이해 말, 긍정

적용 태도

학습곡

본문 152~158쪽

인간관계, 원할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152~158쪽

152쪽 01 ① 02 ②

153쪽 03 ③ 04 ⑤

154쪽 05 ⑤ 06 ②

155쪽 07 ③ 08 ⑤

156쪽 09 ③ 10 ③

157쪽 11 ③ 12 ①

158쪽 13 ③

01 이 실험은 곰팡이를 배양하기 위한 실험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02 이 실험에 따르면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쪽의 쌀밥에서는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풍긴다고 하였다. ①~⑤ 중, 부정적인 말에 해당하는 것은 ②이다.

03 대화 중에 상대방부터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대화가 즐거워진다. 또한 듣는 사람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며, 다음에도 상대와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04 <보기>와 같은 말들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말에 해당하며, 듣는 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소통을 막는 원인이 된다.

05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내용을 전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돌려 말하는 것이 듣는 이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다.

06 대화를 할 때는 대화의 목적, 대화 상황(대화 시간이나 장소), 상대의 처지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상대의 인기 정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07 '옥림'과 '세리'는 서로의 피아노 연주 실력과 시 창작 실력을 깎아내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다.

08 부정적 말하기는 상대를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듣고 싶지 않게 된다. 결국 이러한 말하기는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09 '옥림'과 '세리'는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들이 관계를 회복하려면 진심을 담아 서로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다시 잘못을 상대에게 돌리거나 상대 탓을 하게 된다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10 이 대본은 '옥림'과 '세리'가 서로에게 사과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연출자가 연기자에게 조심성 없고 가벼운 어조로 말하라고 요청하면 인물들의 사과는 진정된 사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연출자는 인물들에게 상황에 맞도록 진심을 담아 차분하게 이야기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11 이 앱은 사용자가 휴대 전화로 대화를 나눌 때, 비속어나 욕설을 입력하면 그 뜻과 함께 순화어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순화된 언어나 재미있는 그림말(이모티콘)로 바뀌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12 온라인 대화에서 폭력적인 언어를 그림말(이모티콘)로 바꾸면 오히려 더욱 생동감 있는 대화가 가능하며 대화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13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오답 풀이 ㄱ. 별명은 사람의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때가 많아 상대방의 인격을 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를 부를 때는 이름으로 부르도록 한다.

ㄴ. 인터넷상에서 언어폭력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압축 파일

본문 159쪽

- ① 언어폭력 ② 긍정적 ③ 배려 ④ 갈등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160~161쪽

- 01 ② 02 ② 03 ② 04 ⑤ 05 ③ 06 ④ 07 ①
08 ① 09 ④

01 (가)는 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글쓴이는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02 '옥림'과 '세리'는 상대의 입장과 처지,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러 상대의 실력을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다.

03 '옥림'과 '세리'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말을 사용하면 말이 더욱 거칠어지고 행동 역시 공격적으로 변하며 관계가 더욱 나빠질 뿐이다.

04 <보기>와 (나)는 모두 상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들었을 때 그와 똑같이 대응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⑤는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의미의 속담이므로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늘 말하던 것이 마침내 사실대로 되었을 때를 이르는 말이다.

②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어느 곳에서나 그 자리에 없다고 남을 홍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④ 기억 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억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5 <보기>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여유가 생기기 않는다. 둘 사이의 관계만 나빠지고 말 것이다.

06 비속어를 입력하면 순화된 언어나 재미있는 그림말로 바뀌어 주는 것은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지 말고 순화된 표현으로 사용하라는 의도이다. 그런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07 배려하며 말을 할 때 나의 입장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말해야 한다.

08 ①은 배려하는 언어생활에 대한 표어라고 하기 어렵다. 여기서 말한 '폭력'이 언어폭력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09 ㉠은 '너 전달법', ㉡은 '나 전달법'으로 표현한 말이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된다. 또 서로의 감정을 덜 상하게 하고,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어휘력 키우기

본문 162쪽

- 1 ⑤ 2 ⑤

1 '홀가분하다'는 '거추장스럽지 않고 가볍고 편안하다'라는 뜻을 지녔다. '헛되고 황당하며 미덥지 못하다'는 '허황되다'의 뜻이다.

2 '안절부절하다'는 '안절부절못하다(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의 잘못된 표현이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본문 163~166쪽

- 01 ② 02 ④ 03 자연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 04 ④
05 ④ 06 ③ 07 ③ 08 ② 09 ⑤ 10 ③ 11 도
덕적 가치를 중시한다. 12 ② 13 ③ 14 ② 15 ④
16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 사용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거
칠어진다. /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 인간관계를 해친다.
17 ③

01 (가)에서 '수남'은 열여섯 살이지만 불은 아직 어린아이처럼 토실하다고 하였다.

02 (라)에서 '주인 영감'이 다친 사람을 걱정하기보다는 치료비로 물어야 할 돈을 아까워하는 모습과 (마)에서 '수남'의 안전보다 물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돈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03 **서술형** 바람을 자연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로 인식하는 '수남'은 바람을 형액, 먼지, 쓰레기를 불러오는 존재로 인식하는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 고독을 느끼고 있다.

04 '주인 영감'은 '수남'의 안전보다 그 사고로 입게 될 금전적 손해를 더 염려하고 있다.

05 '수남'은 '주인 영감'에게 육친애를 느꼈었다. 하지만 (라)에서 '수남'은 자물쇠를 분해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이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그때부터 '주인 영감'에게 따뜻함과 애정 대신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06 (가)에서 '수남'은 사고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나)에서 '수남'은 수리비 대신 자전거를 뺏겼다는 '신사'의 말에 걱정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다)에서 '수남'은 사람들의 부추김에 힘입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면서 해방감과 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에서 '수남'은 '주인 영감'의 속물적인 모습에 혐오감을 느끼며 정이 떨어졌다. (마)에서 '수남'은 자신이 낮에 한 일 때문에 온종일 우울함을 느꼈을 것이다.

07 '수남'은 사람들의 부추김과 자전거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물쇠를 채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기는 했지만,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하고 있으므로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신사'는 어린 '수남'에게 차 수리비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자전거를 잡아 돌 만큼 인정이 없다.
 ② '수남'은 사람들의 부추김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행동을 자책한다.
 ④ '주인 영감'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수남'에게 칭찬을 한다.
 ⑤ '수남'은 자전거 사건 이전에는 '주인 영감'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자전거 사건을 계기로 '주인 영감'이 도덕적 양심보다 금전적 이익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 '주인 영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그에게서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08 ㉠에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수남'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09 (가)~(다)에 등장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수남'이 자신이 낮에 했던 행동이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는 현재의 모습이, (나)에서는 '수남'이 서울로 올라오기 전 '아버지'가 '수남'에게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과거의 일이, (다)에서는 '수남'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현재의 모습이 서술되고 있다.
 ② (가)~(다)에는 '수남'이 자신이 낮에 한 일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지만 신과 같이 '수남'의 속마음까지 모두 알고 있다. 이러한 시점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한다.

④ 이 소설은 '수남'이라는 순수한 소년의 눈으로 도시 사람들의 물질 만능주의와 부도덕성을 고발한다.

10 '수남'이 자물쇠 채워진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신사'가 수리비 대신 자전거를 가져가려 하자 다급해져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저지르는 행동이다.

11 **서술형** '주인 영감'은 도덕적 양심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반면,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수남'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어른이다.

12 (라)에서 '길동'은 아버지인 '홍 대감' 앞에서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에서 태어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뿐, 신분 상승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13 ③의 뜻풀이는 '면제'라는 낱말에 해당한다. '견제'는 '일정한 작용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이 지나치게 세력을 펴거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억누름'이라는 뜻이다.

14 (가)에서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말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쓰려고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래 친구들끼리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주고받다 보면 성격과 행동도 거칠어지고 자칫하면 싸우게 되어 결국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다.

15 '욕립'과 '세리'는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의 실력이 부족하다며 비꼬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거짓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배려하며 말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

16 **고난도 서술형**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다보면 말이 더욱 거칠어지고 행동 역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 나아가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가 목표	언어폭력의 문제점 이해하기
채점 기준	✓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세 가지 쓴 경우 [상]
	✓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두 가지 쓴 경우 [중]
	✓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의 문제점을 한 가지 쓴 경우 [하]

17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의 행동에 대한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이 '나'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다. 또한 문제 상황을 보다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1 마음을 움직이는 글

[1] 비유 표현

예상 적중 소 단 원 평가

본문 03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④ 05 ②

01 (가)의 7~10행은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나 별들 사이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 운동회에서 날아간 야구공이 유리창을 깨는 모습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02 (나)는 다양한 심상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고양이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봄의 느낌과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03 ㉠과 ㉡에는 모두 은유법이 쓰이고 있으며, 시에서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찾을 수 있다. ㉠은 '밤하늘'을, ㉡은 '유성'을 비유하고 있다.

04 ㉢에서는 연결어 '-같이'를 사용하여 '고양이의 털'(원관념)을 '꽃가루'(보조 관념)에 직접 비유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에서도 '-듯이'라는 연결어를 통해 '나그네의 걸어가는 모습'(원관념)을 '구름에 달이 가는 모습'(보조 관념)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내 마음'을 '호수'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꽃잎'이 웃는다며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③ '허수아비'가 팔을 벌리고 웃는다며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⑤ '바람'을 '가을 우체부'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바람'을 '우체부'라는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의인법도 함께 사용되었다.

05 ㉢는 '유성'이 나타나는 순간을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반면, ㉠, ㉡, ㉣, ㉤에는 시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04~05쪽

1단계 01 빛나간 야구공 하나 02 6 03 부드럽다.
04 은유법 05 봄의 줄음(포근함)

2단계 06 반짝거리는 별들로 가득 찬(가득한) 밤하늘의 모습(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07 ㉠에서는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의인법을 활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08 (나)의 2연에는 '고양이의 눈'(원관념)을 '금방울'에 빗대어 표현한 직유법이 쓰이고 있다. 고양이의 눈과 금방울은 크고 동그랗다는 공통점이 있다.

3단계 09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원래의 시구와 바꾸어 쓴 시구의 내용이 비슷하다. 하지만 바꾸어 쓴 표현에서는 원래의 시구에서 활용된 은유법과 의인법이 주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별들이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덜하다. 10 이 시의 제목에는 은유법이 쓰이고 있다. 제목에서 '봄'을 '고양이'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생명력이 가득하며 포근하고 따뜻한 봄의 분위기를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느끼도록 해 준다.

1단계

01 (가)에서는 시의 제목인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빛나간 야구공 하나'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유성'과 '빛나간 야구공 하나'는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02 (가)의 6행에서는 밤하늘에 '유성'이 나타나려는 순간을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03 (나)의 1연에서는 '고양이의 털'을 '꽃가루'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두 대상은 부드럽다는 공통점이 있다.

04 ㉠은 원관념인 '밤하늘'을 '별들의 운동장'에 빗대고 있다. 두 대상을 이어 주는 말 없이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비유하고 있으므로, ㉠은 은유법에 해당한다.

05 3연에서는 '고양이의 입술'에 떠도는 '봄의 줄음(포근함)'을 표현하였다.

2단계

06 (가)의 말하는 이는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 찬 밤하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풍경을 비유적 표현과 시각적,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참신하고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07 ㉠에는 의인법이 쓰이고 있다. ㉠에서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마치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거닐듯이 '바자닌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별들의 반짝임을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08 (나)는 고양이의 각 부위(털, 눈, 입술, 수염)에 봄의 이미지를 대입하여 봄의 속성을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한 시이다. 2연에서는 '고양이의 눈'을 '금방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크고 동그랗다는 것이다.

3단계

09 (가)의 1~3행에서는 은유법과 의인법을 활용하여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의 풍경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을 <보기>와 같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시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형성하고 있던 감흥이 사라져 참신함과 생생한 느낌이 줄게 된다.

평가 목표	시에 활용된 비유적 표현과 그 효과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원래의 시구와 바꾸어 쓴 시구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5점] ✓ 원래의 시구와 바꾸어 쓴 시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어느 하나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5점 감점] ✓ (가)의 1~3행에 쓰인 비유적 표현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 [5점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 10 이 시의 제목인 ‘봄은 고양이로다’에는 ‘봄’을 ‘고양이’에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생명력이 가득하며 포근하고 따뜻한 봄의 분위기를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나타내고 있다.

평가 목표	제목에 쓰인 비유적 표현과 그 효과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봄’을 ‘고양이’에 빗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제목에 쓰인 표현 방법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5점 감점] ✓ ‘~해 준다.’ 형태의 문장으로 끝맺지 않은 경우 [5점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2] 상징 표현

예상 적중 소 단 원 평가

본문 07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⑤ 05 ③

- 01 (가)는 정해진 형식이나 운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자유시이다. 산문시는 시행을 나누지 않고 쓴 시를 말한다.
- 02 (가)의 말하는 이는 진눈깨비가 텅 빈 공중에서 머뭇거리며 흠날린다고 하였으므로, 진눈깨비가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3 (나)에서 제2수의 ‘물’은 정직하고 청렴한 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제3수의 ‘바위’는 굳건하고 의연한 태도를, 제6수의 ‘달’은 포용하는 태도, 과묵한 태도를 상징한다.
- 04 ㉠에서 ‘잠 못 든 이’와 ‘그이’는 동일한 대상으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뜻한다. (가)의 말하는 이는 고통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당부하고 있다.
- 05 (나)는 시조로, 종장의 첫 음보는 3글자로 고정해야 한다. 따라서 글자 수를 고정해야 하는 부분은 제2수의 ‘종고도’, 제3수의 ‘아마도’, 제6수의 ‘보고도’이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08~09쪽

1단계 01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02 청유
03 깊은 고민에 빠져 잠을 못 자는 사람 / 불안한 마음에 잠을 깊이 못 자는 사람 04 평시조, 연시조 05 쉽게 변한다.

- 2단계 06 ‘가장 낮은 곳’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웃)이 사는 공간을 뜻한다. 07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자. 08 (나)의 말하는 이는 제2수에서는 ‘물’을, 제3수에서는 ‘바위’를 예찬하고 있다. 깨끗하고 그치지 않는 특성을 지닌 ‘물’은 정직하고 청렴한 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바위’는 굳건하고 의연한 태도를 상징한다.
- 3단계 09 (나)에서 ‘내 벗’이 가리키는 대상은 ‘달’이다. ‘달’은 온 세상을 비추는 특징과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로 보아 ‘달’은 포용하는 태도와 과묵한 태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단계

- 01 (가)의 4행은 말하는 이가 생각하는 삶의 현실, 즉 삭막하고 고달픈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02 (가)에서는 ‘-자’로 끝나는 청유형 문장을 반복하여 말하는 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듣는 이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
- 03 (가)에서 ‘잠 못 든 이’는 현실의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고통받으며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04 (나)는 시조의 기본 형식을 지닌 평시조이자, 이와 같은 평시조가 하나의 제목으로 엮여 있는 연시조이다.
- 05 (나)에서는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닌 ‘바위’와 쉽게 변하는 특성을 지닌 ‘꽃’과 ‘풀’을 대비하고 있다.

2단계

- 06 (가)에서 ‘가장 낮은 곳’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의미한다.
- 07 (가)에서 말하는 이는 ‘함박눈, 편지, 새살’과 같은 존재가 되자고 말하고 있다. 이 시어들은 위로, 희망, 격려 등을 상징한다. 말하는 이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를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존재가 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08 (나)의 말하는 이는 각 수에서 자신이 바라는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자연물에 대해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2수에서는 깨끗하고 그치지 않는 ‘물’을, 제3수에서는 변하지 않는 ‘바위’를 예찬하고 있다.

3단계

- 09 (나)의 제6수에서 ‘작은 것’, ‘너’, ‘내 벗’이 가리키는 대상은 ‘달’이다. (나)에서 ‘달’은 온 세상을 비추는 특징(포용하는 태도)과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특징(과묵한 태도)을 지니고 있다.

평가 목표	자연물이 상징하는 삶의 태도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이 가리키는 자연물을 밝히고 자연물이 지닌 삶의 태도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30점] ✓ 자연물을 밝혀 쓰지 않은 경우 [10점 감점] ✓ 자연물의 특징이나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10점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3] 자료 찾으며 책 읽기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본문 11쪽

01 ⑤ 02 ④ 03 일지를 작성하면 독후감이나 서평을 쓸 때 도움이 되며,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04 ⑤

- 01 (가)의 두 학생은 대화를 통해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음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하여 함께 읽을 책의 분야를 결정하기 위해 대화를 하고 있다.
- 02 (나)는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고르기 위해 나눈 대화로,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책을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은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 03 **서술형** (다)는 책을 읽으면서 쓴 일지이다. 책을 읽을 때는 그날그날 읽은 부분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낱말이나 잘 모르는 개념,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독후감이나 서평을 쓸 때 도움이 되고 책의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04 ㉠이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환경 분야와 관련된 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⑤는 이야기 글을 읽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한다.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본문 12~14쪽

01 ② 02 '빛나간 야구공 하나'가 비유하고 있는 대상은 '유성'이며, 두 대상은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03 ④ 04 ④ 05 ⑤ 06 ⑤ 07 진눈깨비, 함박눈 08 ① 09 ① 10 ② 11 ③ 12 ⑤ 13 ⑤

- 01 (가)는 비유적 표현과 시각적, 청각적 심상 등을 활용하여 밤하늘의 모습을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밤하늘이 변화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도 않다.
- 02 **고난도 서술형** (가)의 '빛나간 야구공 하나'는 이 시의 제목인 '유성'을 비유하고 있다. 지구로 떨어진 유성과 빛나가서 유리창을 뚫은 야구공은 모두 각자의 궤도에서 벗어난 상황에 있다는 유사점을 지닌다.

평가 목표	시에 활용된 비유적 표현 이해하기
채점 기준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유사점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상]
	✓원관념과 보조 관념 중 어느 하나를 밝혀 쓰지 않은 경우 [중]
	✓'~유사하다.' 형태의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하]

- 03 (나)의 말하는 이는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에서 각각 봄의 향기, 불길(생명력), 줄음(포근함), 생기를 떠올렸으나, 고양이의 다리는 말하는 이가 언급한 고양이의 모습이 아니다.
- 04 ㉠에서는 '밤하늘'을 '운동장'에 빗대어 표현(은유법)하고 있고, 반짝이는 별들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의인법)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를 활용하면 표현하려는 대상인 반짝거리는 별들이 떠 있는 밤하늘의 모습을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
- 05 ㉡에는 코를 통해 봄의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을 주는 후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이와 동일한 심상이 사용된 시구는 ⑤로, ⑤에도 코를 통해 꽃지짐(꽃잎 등을 펴 놓고 지저 만든 전병)의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을 주는 후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①, ④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시각화)이 사용되었다.
② 청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③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 06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등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감각적 실체로 표현하는 방법을 '상징'이라고 한다. (가)와 (나)는 모두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07 **서술형** (가)의 시상 전개에 따른 중심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1~3행의 중심 시어는 '진눈깨비'이고, 4~7행의 중심 시어는 '함박눈'이다.
- 08 (나)는 '물', '바위', '달'이 지닌 품성을 예찬한 시조이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 09 ㉢에서는 '우리'를 '눈발'로 가정하고 있지만, 이때의 '눈발'은 '진눈깨비'와 같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에게 위안을 주는 '함박눈'과 같은 존재로서의 '눈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 10 ㉣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온 세상을 다 비추는 특성을 지닌 '달'이다. '달'은 포용하는 태도, 과묵한 태도를 상징하는데, 이와 유사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학생은 동생의 실수를 너그럽게 감싸 주고 포용하는 '정미'이다. '현아'와 '주인'은 '물'과, '준서'와 '승민'은 '바위'와 유사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
- 11 (가)에서는 모둠 구성원들이 함께 읽을 책을 어떻게 고를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나)에서는 모둠에서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12 (가)의 모둠 구성원들은 각자 책을 어떻게 고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책 고르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정우'가 신문 기사나 블로그의 서평을 찾아보라는 조언을 한 것은 맞지만, 조언한 대상은 '준서'가 아니라 '지민'이다.
- 13 책 읽기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행위는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감상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책 읽기 경험을 나눌 때, 다양한 관점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헤아려 읽고, 맞추어 쓰고

[1] 예측하며 읽기

예상 적중 소 단 원 평가

본문 16~17쪽

- 01 ④ 02 ①, ② 03 ④ 04 첫인상은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상대의 성격을 제한된 정보뿐인 자기의 잣대로 재단하여 마음대로 형성한 것이기에 위험하다. 05 ③ 06 ③ 07 ①
08 ㄱ: 기후 변화, ㄴ: 에너지를 절약(자원을 절약)

01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는 글을 읽으면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지, 예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02 이 글은 사람들이 첫인상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면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라)에서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③ 이 글에서는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④ 글쓴이의 경험보다는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⑤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쓴 글이다.

03 이 글에서 ④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오히려 (다)에서 사람들은 한번 형성된 첫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전화나 전자 우편을 통한 만남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마)에서 사람의 성격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사람들이 첫인상을 형성할 때 얼굴 생김새, 체격, 키 등의 겉모습과 몸짓, 말투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⑤ (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내린 판단에 들어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쉽게 잊어버리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사람들은 자신이 내린 판단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서술형 (마)에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위험성과 글쓴이의 당부가 나타나 있다. 글쓴이가 첫인상이 위험하다고 한 이유는 (마)의 첫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05 '나라'는 이 글의 읽기 맥락을 바탕으로 글이 사회에(독자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있다.

06 글쓴이는 (다)에서 많은 이들이 기후 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원을 아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녹색 성장을 이룰 수는 없다.

07 <보기>는 '더위가 알려 준 진짜 충격'이라는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08 서술형 (다)에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18~19쪽

1단계 01 사람들이 처음에 형성된 인상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02 자기의 경험과 지식 03 사람의 성격은 다양하다. 04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이다. 05 가설 검증 바이어스

2단계 06 마른 사람은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울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다. 07 글쓴이에 대한 정보와 글의 제목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과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를 예측하였다.

3단계 08 이 글의 제목을 보니 글쓴이는 인간관계에서 '첫인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쓴 것 같다. / '바이어스(bias)'가 '편견'이라는 뜻이니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어떤 가설을 검증할 때 편견이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 같다. / '아예 무시해 버린다.', '제멋대로 확신해 버린다.'와 같은 표현을 보니,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등

1단계

01 (가)의 마지막 문장에서 사람들은 처음에 형성된 인상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02 (나)는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상대의 성격을 다르게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나)의 마지막 문장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잣대로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03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555개나 된다는 연구를 통해 사람의 성격이 다양하며,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4 글쓴이는 첫인상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고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05 혈액형 성격학이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다. ㉠ 뒤에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작용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2단계

06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자신이 세운 가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시된 상황에 적용하면 마른 사람은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울 것이라는 자신이 세운 가설을 증명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단정할 것이다.

07 글쓴이가 해 온 활동 즉, 글쓴이에 대한 정보와 「관계는 첫인상부터 시작된다」라는 글의 제목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인간관계에 작용하는 첫인상과 관련한 심리학)과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대중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를 예측하였다.

3단계

08 ㄱ과 ㄴ에서 하나씩 골라 예측하며 읽은 내용이 타당해야 한다.

평가 목표	예측하며 읽기
채점 기준	✓ ㄱ 중 하나를 활용하여 ㄴ 중 하나를 예측한 내용이 타당하며, 완결된 형태의 한두 문장으로 쓴 경우 [40점] ✓ ㄱ과 ㄴ 중 하나만 포함되어 있을 경우 [20점] ✓ ㄱ과 ㄴ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활용하여 쓴 경우 [5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2) 통일성 있는 글 쓰기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본문 21쪽

- 01 ④ 02 ② 03 '가운데-1. 독도의 지리'의 하위 항목
04 ③

- 01 '정우'는 텔레비전에서 독도 여행 프로그램을 보고 독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정우'는 글을 쓰기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수집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 02 (가)에서 '정우'가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알리고 싶다고 하였다. 가운데 부분에서 빠진 내용을 확인해 보면 ㉠에는 '독도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3 **서술형** <보기>의 자료는 '독도의 지리'와 관련된 내용이다.
- 04 (다)의 맨 마지막 문장은 독도의 위치를 설명한 문장으로 (다)의 중심 내용인 '독도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문단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가운데-3. 독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② 이 글은 객관성과 사실성이 두드러지는 설명하는 글이다.
 ④ (다)는 독도 주변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어 독도의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내용이다. 석유와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을 비교하는 그래프는 필요하지 않다.
 ⑤ (다)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문단으로 '독도에 사는 희귀 생물'에 관한 내용이 나올 이유가 없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22~23쪽

- 1단계** 01 내용 조직하기 02 설명하는 글 03 가운데-2. 독도의 역사 04 2-라. 독도를 관광하는 방법 05 오빠와 나는 사이가 좋다.
- 2단계** 06 '가운데-1-나. 경제적 가치'는 '가운데-3. 독도의 가치'의 하위 항목이므로 그쪽으로 위치를 옮겨야 한다. 07 <보기>는 '가운데-3-가. 환경·생태학적 가치'에 해당한다.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라는 문장은 문단의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였을 때 삭제해야 한다.
- 3단계** 08 (다)는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보기>는 한 편의 글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내용이 유기적이지 않아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1단계

- 01 글쓰기는 '계획하기-내용 생성하기-내용 조직하기-표현하기와 고쳐쓰기'의 단계를 거친다. (나)는 생성한 내용을 토대로 쓴 개요로,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수행한다.
- 02 (나)는 설명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처음-가운데-끝)를 띠고 있고, 가운데 부분의 내용이 독도에 대한 정보이므로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한 개요라고 볼 수 있다.
- 03 (가)는 독도의 과거에 대한 기록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독도의 역사'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
- 04 이 글은 독도의 역사와 가치 등에 대해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쓴 글로, '독도를 관광하는 방법'은 글의 주제와 관계없다.
- 05 (다)의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다.

2단계

- 06 개요의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적절하게 배열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한다.
- 07 <보기>는 독도가 화산의 성장과 진화의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 희귀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가운데-3-가. 환경·생태학적 가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문단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바위섬인 독도는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라는 문장은 문단의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이다.

3단계

- 08 (다)는 글이 하나의 주제(오빠와 나는 사이가 좋다.)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보기>는 하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하고 있어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평가 목표	글의 통일성 이해하기
채점 기준	✓ (다)와 <보기>의 다른 점을 밝히고, '주제'라는 낱말을 활용하여 <보기>의 문제점을 정확히 서술한 경우 [40점] ✓ (다)와 <보기>의 다른 점을 밝히고, <보기>의 문제점을 서술하였으나 '주제'라는 낱말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30점] ✓ <보기>의 문제점을 서술하였으나 (다)와의 다른 점을 밝히지 않은 경우 [2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본문 24~27쪽

- 01 ② 02 ⑤ 03 ② 04 ⑤ 05 우리가 첫인상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래. 즉, '가설 검증 바이어스'가 작용하였기 때문이야. 혹시 네가 이러한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영향으로 그 친구가 예민하게 행동한 것만 기억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그 친구에게도 여러 측면의 성격이 있을 거야. 앞으로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의 실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해 봐. 06 ③ 07 ③ 08 ④ 09 (다). (다)는 이 글의 주제인 '독도의 가치'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글의 통일성을 깨뜨린다. 10 ③ 11 ⑤ 12 ② 13 ④ 14 ④

01 이 글은 설명하는 글로,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글의 구성 단계별로 문단을 나누면 (가)는 처음, (나), (다), (라)는 가운데, (마)는 끝에 해당한다.

02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제한된 정보로 형성한 첫인상을 확고히 유지하게 하고,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기 어렵게 한다.

03 글쓴이가 해 온 활동, 제목을 통해 이 글이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람의 심리, 그중 첫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04 낱말의 뜻을 활용하여 생소한 개념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예측하며 읽기에 해당한다.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 글을 바르게 읽은 학생은 ‘지환’이다.

05 **고난도 서술형** 제시된 학생의 말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되,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평가 목표	글의 내용 내면화하기
채점 기준	✓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을 활용하여 학생의 말에서 잘못된 점을 밝히고 해결 방안까지 쓴 경우 [상]
	✓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을 활용하여 학생의 말에서 잘못된 점만 밝힌 경우 [중]
	✓ 해결 방안만 밝힌 경우 [하]

06 신문 기사는 기부를 실천한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

07 (나)의 개요를 보면, ‘가운데-1.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과 ‘가운데-2.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이 대응을 이루고 있다. ㉠에는 ‘기부 단체에 대한 불신’에 대응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이 가장 적절하다.

08 (다)에서 독도 강치는 일제 강점기 때 무자비한 포획으로 멸종되었다고 하였다.

09 **서술형** ‘독도 강치’를 설명하고 있는 (다)는, 독도의 가치를 설명한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어 글의 통일성을 깨뜨린다.

10 (나)는 독도의 환경·생태학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는 내용은 (나)의 중심 내용과 반대되므로 삭제해야 한다.

11 (라)는 독도의 위치적 가치를 설명한 문단이다. 그런데 (가)의 마지막 문장은 독도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12 (나)의 중심 내용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갖대로 상대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평평한 사람과 마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첫인상은 중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사례이다.

13 ㉠은 제한된 정보로 상대의 첫인상을 형성한 후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상대의 실제 모습을 알기 어렵다.

14 ㉠은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바르게 예측한 것이다.

3 재미있는 낱말 탐험

[1] 품사의 종류와 특성

예상 격률 소 단 원 평가

본문 29~30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⑤
07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또는 활용할 수 있다. 08 ③
09 ③ 10 ① 11 ① 12 ⑤ 13 ⑤ 14 ㉠은 정수가 다른 사람들도 부르고 민호 역시 불렀다는 의미이고, ㉡은 여러 사람 중 오로지 민호만 불렀다는 의미이다. 15 ⑤ 16 ③

01 ㉠은 모두 용언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은 체언(꽃, 이짓), 수식언(모든, 과연), 독립언(아하)이므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02 ‘보다’는 비교(~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로 관계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춡다’는 주체의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이다.
② ‘풍경’은 문장에서 주체의 역할을 하는 체언이다.
③ ‘참’은 뒤에 오는 용언 ‘동그랗다’를 꾸며 주는 수식언이다.
⑤ ‘어허’는 다른 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이다.

03 낱말은 그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분류할 수 있다. ⑤는 모두 감탄사이다.

오답 풀이 ① ‘신발’은 명사, ‘당신’은 대명사, ‘셋째’는 수사이다.
② ‘맷다’는 형용사, ‘웃다’와 ‘씻다’는 동사이다.
③ ‘몹시’와 ‘실컷’은 부사, ‘무슨’은 형용사이다.
④ ‘예게’와 ‘부터’는 조사, ‘많이’는 부사이다.

04 ‘비’, ‘우산’, ‘가방’, ‘사탕’은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우정’은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에 해당한다.

05 ㉠은 사신을 대신 나타낸 말이고 ㉡은 굴뚝을 대신 나타낸 말이다. ㉠은 관형사, ㉡은 명사, ㉢은 부사에 해당한다.

06 밑줄 친 낱말은 모두 수사에 해당한다. 수사는 체언에 속하는데, 체언은 주로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므로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07 **서술형** <보기>는 동사(말하다)와 형용사(맛있다)가 문장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8 ‘새로운’, ‘아파서’, ‘좋은’, ‘반갑네요’는 모두 형용사에 해당한다. ‘흐르는(흐르다)’은 동사에 해당한다.

09 ‘듣는’은 동사의 어간 ‘듣-’에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는’을 붙여 활용한 형태이다. 형용사인 ‘즐겁다’에는 현재형 어미가 붙을 수 없다.

10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수식언이다. 수식언에는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싶은’은 ‘-고 싶다’의 형태로 사용되는 보조 형용사이다.

11 ①의 '저기'는 장소를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②의 '두'는 '명'을, ③의 '온갖'은 '종류'를, ④의 '새'는 '집'을, ⑤의 '어떤'은 '소리'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12 제시된 문장에 쓰인 '너무'는 부사 '많이'를, '유난히'는 형용사 '맑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체언을 꾸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품사는 관형사이다.

13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 '가겠다'의 '-다'는 용언의 어간 '가-' 뒤에 붙은 종결 어미이다.

14 **서술형**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역시'의 의미를 더해 주고,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오로지'의 의미를 더해 준다.

15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낱말은 감탄사이다. '아'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여,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감탄사이다.

오답 풀이 ① '그렇습니다'는 '그렇다'의 활용형으로 형용사이다.
② '오늘'은 명사이다.
③ '예약하려고'는 '예약하다'의 활용형으로 동사이다.
④ '다'는 뒤에 오는 용언인 '춥습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16 제시된 문장에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 주는 말인 부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우아'는 독립언이다.
② '하나'는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인 수사이다.
④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해 주는 낱말인 조사는 '예'와 '가' 두 개가 사용되었다.
⑤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 낱말인 용언은 '밝은'과 '떴다' 두 개가 사용되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31쪽

1단계 01 ㉠: 품사 ㉡: 기능 02 여기, 필통, 연필, 하나 03 부사: 3개, 명사: 2개, 조사: 2개, 동사: 1개

2단계 04 '가다'가 ㉡에서는 '가고', ㉢에서는 '가지', ㉣에서는 '가는' 등 형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활용한다.

3단계 05 관형사에 해당하는 '아무런'과 부사에 해당하는 '아마, 아직, 아무리'로 나눌 수 있다. 관형사와 부사는 둘 다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지만,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반면,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06 ㉠은 관형사이고, ㉡는 형용사이다. 관형사인 ㉠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고,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반면 형용사인 ㉡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고 문장에서 주로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며,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1단계

01 품사는 낱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다.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형태, 기능, 의미가 있다.

02 체언은 문장에서 주로 주체가 되는 말로,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가가 있다. '여기'는 대명사, '필통'과 '연필'은 명사, '하나'는 수사에 해당한다.

03 '분명히', '아주', '많이'는 부사, '그날', '비'는 명사, '은'과 '가'는 조사, '내렸다'는 동사에 해당한다.

2단계

04 ㉠의 괄호 안에는 '가고, 가지만' 등이, ㉡의 괄호 안에는 '가자, 가요' 등이, ㉢의 괄호 안에는 '갈, 가는' 등이 들어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용언은 문장에서 쓰일 때 다양한 어미가 붙어 그 형태가 달라지는데, 이를 활용이라고 한다.

3단계

05 '아무런'은 관형사에 해당하고, '아마', '아직', '아무리'는 부사에 해당한다. 관형사와 부사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지만,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는 반면,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 등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평가 목표	관형사와 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보기>의 밑줄 친 낱말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을 경우 [25점]
	✓ <보기>의 밑줄 친 낱말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품사를 밝혔으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12점]
	✓ <보기>의 밑줄 친 낱말을 올바르게 분류하였으나 품사를 밝히지 못한 경우 [7점 감점]
	✓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서술하였을 경우 [7점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06 문장에서 '새'와 '예쁜'은 둘 다 뒤에 오는 명사인 '옷'을 꾸며 준다. 그러나 두 낱말은 품사가 다르다. '새'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이다. '예쁜'은 형용사 '예쁘다'의 활용형으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며 '옷이 예쁘다'와 같이 주로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의 기능을 한다.

평가 목표	관형사와 형용사의 차이점 파악하기
채점 기준	✓ ㉠과 ㉡의 품사의 차이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을 경우 [30점]
	✓ ㉠과 ㉡의 품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10점 감점]
	✓ 관형사와 형용사의 품사적 특성 중 하나만 서술하였을 경우 [10점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2] 어휘의 체계와 양상

예상 적중 소 단 원 평가

본문 33~34쪽

01 고유어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은어는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쓰는 말임으로 외부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01 **서술형** 제시된 낱말들은 모두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인 고유어에 해당한다.

02 '얼굴'은 고유어이다. '주문(注文)', '필통(筆筒)', '체육복(體育服)', '시작(始作)'은 모두 한자어이다.

03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낱말은 외래어이다. 외래어에 해당하는 낱말은 '초콜릿(chocolate)'이다. '오로지', '미리내', '시나브로', '나이테'는 모두 고유어에 해당한다.

04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상호 보완의 관계로, 어느 하나만 사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다만 외래어의 경우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자국어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순화해 사용하려는 태도는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그 뜻이 분화된 경우가 많아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② 외래어는 외국과의 문화적 교류 과정에서 들어온 말로, 고유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우리말을 풍부하게 해 준다.

③ 고유어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다.

④ '뽕'은 포르투갈 어, '고무'는 프랑스 어에서 왔으나 고유어처럼 인식된다.

05 고유어에는 색깔의 정도나 느낌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색채어)이 발달하였음을 보여 준다.

06 고유어 '마음'은 하나의 낱말이 여러 의미를 지니지만,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의미가 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웰빙(well-being)', '레스토랑(restaurant)', '에이스(ace)', '뷰티(beauty)', '센터(center)'는 모두 외래어이다. ㉓의 '국이랑 밥이랑'은 고유어만 사용하여 만든 이름이다.

08 밀줄 친 낱말은 모두 외래어이다. 외래어는 주로 이전에 없던 제도나 문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오답 풀이 ① 주로 한자어가 고유어에 비해 뜻이 분화되어 있다.

② 고유어에 대한 설명이다.

③ 전문어에 대한 설명이다.

⑤ 유행어에 대한 설명이다.

09 '텔레비전(television)'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는 외래어이다.

10 밀줄 친 낱말은 지역 방언에 해당한다. 지역 방언은 해당 지역 특유의 정서를 담고 있으며,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소중한 언어 자료이다. 그러므로 지역 방언이 존스러운 말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지역 방언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1 ㉓은 지역의 차이에 의해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역 방언의 예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심마니들이 사용하는 은어에 해당한다.

②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에 해당한다.

④ 음악 분야의 전문어에 해당한다.

⑤ 성별에 따른 사회 방언에 해당한다.

12 <보기>에서 설명하는 어휘는 전문어이다. '정전'과 '엘리베이터'는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낱말이다.

13 '꾸렸다네(꾸리다)'는 일반인들도 자주 사용하는 낱말이다. 나머지는 모두 심마니들이 사용하는 은어이다.

오답 풀이 ① '어인마니'는 '산삼 캐기에 경험이 많고 능숙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③ '천둥마니'는 '산삼 캐기를 처음하거나 나이가 어린 심마니'를 이르는 말이다.

④ '데팽이'는 '안개'를 이르는 말이다.

⑤ '소망 보다'는 '산삼을 캐다'라는 말이다.

14 **서술형** 은어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특정 집단의 구성원끼리만 사용하는 말이다. 은어는 같은 집단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의 소속감과 친밀감을 형성하지만, 다른 집단에서 사용할 경우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35쪽

1단계 01 ㉠: 고유어 ㉡: 외래어 02 세대(나이, 연령)의 차이 03 속어(비속어, 비어)

2단계 04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잘 담아내어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를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05 밀줄 친 낱말들은 뜻이 정밀하고 분명한 전문어로, 전문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면 관련된 전문 분야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단계 06 '쓰는 말'은 외래어에 해당하고 '바꾼 말'은 고유어에 해당한다. 외래어를 고유어로 다듬어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1단계

01 우리말의 어휘를 어종(말의 뿌리)에 따라 분류하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이고,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이다.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02 세대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린아이는 '맘마(밥)', '까까(과자)'와 같은 말을 주로 쓴다.

03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은 '속어'이다. 속어는 일반적인 표현에 비해 비속하고 천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비속어 또는 비어라고도 한다.

2단계

04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잘 담아내어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 등을 더욱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등장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독자에게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05 밀줄 친 낱말들은 음악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뜻이 정밀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3단계

- 06 <보기>에서 ‘쓰는 말’은 외래어이고, ‘바꾼 말’은 고유어이다.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우리말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가 목표	외래어 남용의 문제점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꿔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였을 경우 [30점]
	✓ ‘쓰는 말’과 ‘바꾼 말’의 어휘의 유형을 밝히지 못하였을 경우 [10점 감점]
	✓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어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바르게 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10점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본문 36~39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③	05 ①	06 ①
07 ④	08 ②	09 ⑤	10 ①	11 ③	12 ①
13 ④	14 ⑤	15 ④	16 ①	17 ④	18 스커트 → 치마
19 ①	20 ⑤	21 ②	22 ①	23 ⑤	24 ①
25 ⑤	26 네, 이번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이 오르면 삼촌이 생일 선물로 구두 사 준다고 했거든요.	27 ④			

- 01 ‘몹시’, ‘모든’, ‘결코’는 모두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말인 수식언이다.

- 오답 풀이** ① 형태가 변하는 낱말인 용언에는 ‘기쁘다’, ‘달리다’가 있다.
 ② 이름을 나타내는 낱말인 명사는 ‘구름’뿐이다. ‘그것’은 사물을 대신 나타내는 말인 대명사이며 ‘셋’은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인 수사이다.
 ③ 독립적으로 쓰이는 낱말인 독립언에는 ‘어머’가 있다. ‘에게’는 낱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말인 조사이다.
 ④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인 동사에는 ‘달리다’가 있다.

- 02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 03 ③의 ‘두’는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뒤에 오는 명사 ‘사람’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므로 수사가 아니라 관형사이다. 관형사 ‘두’ 뒤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 04 ③의 ‘역시’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이다. ①은 수사, ②와 ⑤는 명사, ④는 대명사로 모두 체언에 해당한다.

- 05 ①의 ‘저’는 뒤에 오는 명사 ‘집’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므로 관형사에 해당한다.

- 06 품사는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와 ㉡는 문장에서 주로 주체를 서술하는 용언이다.

- 오답 풀이** ㉢~㉤ ㉢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언이다. ㉠와 ㉡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수식언이다. ㉢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이다. ㉣는 주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 07 ㉦, ㉧, ㉨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 ㉪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 08 ‘빨리’는 뒤에 오는 동사 ‘먹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로 수식언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맛있게’는 형용사인 ‘맛있다’의 활용형이다.
 ③ ‘핀’은 동사인 ‘피다’의 활용형이다.
 ④ ‘가득했다’는 형용사인 ‘가득하다’의 활용형이다.
 ⑤ ‘지으며’는 동사인 ‘짓다’의 활용형이다.

- 09 형용사에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는다/-는다’, 청유를 나타내는 ‘-자’, 명령을 나타내는 ‘-아라/-어라’가 붙을 수 없다. 감탄을 나타내는 어미와 결합할 경우, 동사에는 ‘-는구나’가 붙을 수 있는 반면 형용사에는 ‘-구나’가 붙을 수 있다.

- 10 밑줄 친 낱말은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용언)이다. ①의 ‘새’는 형태의 변화 없이 명사 ‘옷’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수식언)이다.

- 오답 풀이** ②의 ‘예쁜’, ③의 ‘노란’, ④의 ‘멋있는’, ⑤의 ‘따뜻한’은 모두 형용사이다.

- 11 ‘아미’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에 해당한다. ‘옛’, ‘다른’, ‘이’, ‘여러’는 각각 뒤에 오는 체언인 ‘친구’, ‘일’, ‘가방’, ‘가지’를 꾸며 주므로 관형사이다.

- 12 ‘어떤’은 뒤에 오는 체언인 ‘학생’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급히’, ‘그래서’, ‘화들짝’은 부사이므로 모두 수식언에 해당한다. 수식언은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한다.

- 13 ㉠은 ‘역시’라는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이고, ㉡과 ㉢은 각각 앞말에 주어와 서술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이다. 조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는 예외적으로 형태가 변한다.

- 14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부사이다. 감탄사는 뒤에 오는 문장을 꾸며 주는 낱말이 아니라 문장에서 다른 말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 15 혼자 쓰일 수 없는 낱말인 조사는 ‘에게’, ‘을’, ‘은’, ‘이다’로 모두 네 개다.

- 오답 풀이** ① 독립언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형태가 변하는 낱말은 ‘준’, ‘이다’로 두 개 사용되었다.
 ③ 체언에 해당하는 낱말은 ‘그녀’, ‘선물’, ‘사람’, ‘영호’로 네 개가 사용되었다.
 ⑤ 관형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 16 ‘샤워’와 ‘뽕’은 외래어이고, ‘얼굴’은 고유어, ‘우유’와 ‘복장’은 한자어이다.

- 17 ㉠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가지는 관심’, ㉢는 ‘이성이나 타인에 대한 사랑이나 호의(好意)의 감정’이라는 의미로 사용

되고 있지만, 이는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사용하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 18 **서술형**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은 고유어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고유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은 고유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A]에 사용된 외래어 중 '모델'은 고유어로 바꾸어 쓰기 어렵지만, '스커트'는 '치마'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19 ①은 모두 고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오답 풀이** ② '학교'는 한자어, '버스'는 외래어이다.
③ '학교', '교훈', '성실'은 모두 한자어이다.
④ '친구', '서점', '소설책'은 모두 한자어이다.
⑤ '티셔츠'는 외래어이다.

- 20 '매장(賣場)'은 한자어이다.

- 오답 풀이** ① '립스틱'은 대응되는 고유어가 없다.
② '핑크(pink)'는 외래어, '색(色)'은 한자어이다.
③ '사랑스러움'은 고유어이다.
④ '상품(商品)'은 한자어이다.

- 21 <보기>는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글이다.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은 학생은 '초롱'이다. '본보기'는 '롤 모델(role model)'을 순화한 말이다.

- 22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같은 지역 사람끼리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서로 친근감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23 전문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말할 때에는 쉽게 풀이해서 사용해야 한다.

- 24 속어에는 비밀 유지의 기능이 없다. 비밀 유지의 기능이 있는 어휘는 은어이다.

- 25 <보기>는 주로 청소년 집단에서 사용하는 줄임 말이다. 다른 집단과 대화할 때 <보기>의 낱말들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 26 **고난도 서술형**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손녀가 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토레 사이에서 쓰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평가 목표	담화 상황에 맞는 어휘 사용하기
채점 기준	✓ '인강', '열공', '생선'을 모두 찾아 바르게 고친 경우 [상] ✓ 두 개의 낱말만 찾아 바르게 고친 경우 [중] ✓ 한 개의 낱말만 찾아 바르게 고친 경우 [하]

- 27 ㉠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인 지역 방언이 사용되었고, ㉡~㉣은 직업, 세대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인 사회 방언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① 충청도 지역에서 쓰는 방언이 사용되었다.
②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의학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는 전문어가 사용되었다.
③ ㉢은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인 속어, ㉣은 젊은 세대끼리 주로 쓰는 은어가 사용되었다.
⑤ 다른 지역 사람에게 지역 방언을 사용하거나, 사회 집단이 다른 사람에게 사회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4 갈등을 넘어 소통으로

[1] 갈등하는 삶

예상 적중 소 단 원 평가

본문 41~43쪽

- 01 ④ 02 ① 03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했다. 04 ④ 05 ③ 06 ⑤ 07 '수남'이 올라 연민(동정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08 ⑤ 09 ① 10 ⑤ 11 ⑤ 12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누런 뚱뚱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 01 이 글의 갈래는 소설이다.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있고, 등장인물들이 겪는 갈등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또한 소설은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이지만 현실에 있는 법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반영하기도 하는 특성을 지닌다. 함축적 의미를 지닌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갈래는 시이다.

- 02 (가)는 '수남'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밝히고 있으며, 외양 묘사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가)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는 '발단'에 해당한다.

- 03 **서술형** 다친 사람을 걱정하기보다 애꿎은 돈을 물어야 하는 '전선 도매집 주인아저씨'를 동정하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람의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도시 사람들의 물질 만능 주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04 '수남'이 남보다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가게 일을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주인 영감'의 칭찬의 손길 이 좋기 때문이다. '수남'은 그 손길에서 부모의 사랑과 같은 육친애를 느낀다.

- 오답 풀이** ① '수남'의 외양 묘사를 통해 그가 순수하고 순진한 성격임을 엿볼 수 있다.
② '수남'은 '주인 영감'이 겉으로만 자신을 이용하는 것을 모르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는 '주인 영감'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③ '주인 영감'이 사실은 '수남'의 공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골목에서 난 사고로 '수남'은 자기에게도 재수 없는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에 불안해한다.

- 05 '수남'의 안전보다 금전적 손해를 더 걱정하는 '주인 영감'의 말에서 그의 이기적이고 욕심 사나운 성격을 엿볼 수 있다.

- 06 강한 바람에 '수남'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신사'의 차에 흠집을 낸 것이 원인이 되어 '수남'과 '신사'가 갈등하게 된다.

- 07 **서술형** ㉠은 '수남'이 차 수리비를 물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두렵고 억울하여 우는 모습을 본 '신사'의 반응이다. '신사'의 목청이 다분히 누그러지며 목소리에 연민이 담긴 것에서 '신사'는 '수남'이 우는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8 '신사'는 운전사도 있을 만큼 부유하지만 어린 '수남'에게 자동차 수리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야박하고 이기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09 '수남'은 '주인 영감'에게서 따뜻한 육친애를 느껴 가게 일에 헌신해 왔다. 그러나 '주인 영감'이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오히려 칭찬하자 '주인 영감'의 비도덕적인 본모습을 깨닫고 그에게 실망하게 된다.
- 10 '주인 영감'은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행동에 대해 칭찬하는 반면 '아버지'는 '수남'에게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이를 통해 '주인 영감'과 '아버지'는 도덕성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으며, '수남'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 11 '수남'이 말하는 도둑질은 '수남'의 자전거가 '신사'의 자동차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행동을 의미한다.
- 12 **서술형** 이 글에서 '누런 뽕빛'은 비양심성, 부도덕성을 상징하는데, '수남'의 얼굴에서 '누런 뽕빛'이 가셨다는 것은 '수남'을 둘러싼 부도덕성이 말끔히 해소되었음을 뜻한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44~45쪽

- 1단계** 01 (마) 02 순진하다. 03 생채기 04 수남이는 자기편이 되어 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05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
- 2단계** 06 점원을 더 쓰면 돈이 더 들기 때문이다. 07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 08 ㉔: 전지적 작가 시점, ㉕: 등장인물('수남')의 내적 갈등을 생생하게(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3단계** 09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떠남으로써 내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수남'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고자 했다. 10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여 갈등을 해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남'의 자전거가 '신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 나도 '수남'처럼 자전거를 들고 도망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사'가 요구한 수리비는 '수남'과 합의도 거치지 않은 큰돈이었기 때문이다.

1단계

- 01 '수남'의 내적 갈등이 최절정에 이르는 문단은 구성 단계 중 '절정'에 해당하는 (마)이다. 자전거를 들고 도망쳤던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는 '수남'의 모습이 나타난다.
- 02 순진한 '수남'은 인건비를 아끼고자 자신을 희생시키는 '주인 영감'의 속내를 알지 못하고 '주인 영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며 고마워한다.

- 03 '신사'와 '수남'이 갈등하게 된 원인은 '수남'의 자전거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신사'의 차에 생채기를 냈기 때문이다.
- 04 (라)에서 자전거를 들고 도망칠 때, 자신에게 도망치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배반할 수 없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수남'의 심리가 드러난다. 이때 '수남'은 쾌감을 느끼지만, 나중에는 이로 인해 또 다른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 05 금전적 손해만 없으면 잘못된 행동도 칭찬하는 '주인 영감'과 달리 '아버지'는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2단계

- 06 (가)의 '주인 영감'의 말은 '수남'을 위해 하는 말 같으나 결국 점원을 더 안 쓰려는 핑계이다. '주인 영감'은 점원을 한 명 더 쓰면 그만큼 월급이 더 들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끼고자 '수남'을 위하는 척하며 혹사시키는 것이다.
- 07 '수남'은 '신사'의 자동차에 흠집을 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일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에 빠졌다.
- 08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는 누군가로, 사건의 전개뿐만 아니라 주인공인 '수남'의 심리를 자세히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등장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과 갈등의 전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3단계

- 09 '수남'은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주인 영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도덕성을 회복한다. 작가는 이러한 '수남'의 모습을 통해 도덕적 양심보다 물질적인 이익을 중시하던 당시 도시 사람들의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려고 했다.

평가 목표	작가의 궁극적인 집필 의도(주제)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수남'의 갈등 해결 방법을 쓰지 않은 경우 [10점]
	✓ 한 문장으로 쓰지 않은 경우 [5점 감점]
	✓ 맞춤법이 잘못되었거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 [1점씩 감점]

- 10 '수남'의 해결 방법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옳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평가에 대한 근거가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남'과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신사'의 요구가 '수남'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어린 '수남'에게는 지나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수남'과 반대의 결정을 했을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찌 되었든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고 도망친 '수남'의 행동을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다.

평가 목표	도덕적 갈등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적절한 답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선택한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10점]
	✓ 주어진 형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5점 감점]
	✓ 맞춤법이 잘못되었거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 [1점씩 감점]

[2] 배려하며 말하기

예상 적중 소 단 원 평가

본문 47쪽

01 ② 02 ⑤ 03 ③

- 01 ㉠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쪽은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쪽 쌀밥 그릇이다. 듣는 이에 대한 애정을 담은 감탄이나 찬사는 부정적인 말과는 다르게 듣는 이의 기분을 좋게 하는 긍정적인 말이다.
- 02 ‘옥림’과 ‘세리’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의 실력을 깎아내리며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옥림’과 ‘세리’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은 아니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사람에게는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요구된다.
- 03 **서술형** 대화 맥락상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야 하는데, ㉡에서 ‘옥림’은 다시 상대를 탓하고 있으므로 맥락에 적절하지 않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48쪽

- 1단계** 01 언어폭력 02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다. / 인간관계를 더욱 좋아지게 한다.
- 2단계** 03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의 실력이 부족하며 비교듯이 말했다. 04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며 관계가 서먹해지고 심하게는 절교를 할 수 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 표현(말의 내용, 표정, 몸짓, 말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05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고, 오래 대화하고 싶지 않으며, 나 역시 부정적인 말만 골라서 하게 된다. 따라서 말이 미치는 영향을 알고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 위주로 말해야 한다.
- 3단계** 06 말을 할 때에는 듣는 사람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 / 듣는 사람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등

1단계

- 01 욕설이나 비난, 헐박, 조롱과 같은 언어폭력은 말로써 사람을 공격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언어폭력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막는 원인이 되며, 사용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도 거칠고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삼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 02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면 대화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더욱 좋아지게 한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배려하며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단계

- 03 ‘옥림’은 ‘세리’의 피아노 실력이 부족함을 비꼬는 말을 했고, 이에 ‘세리’는 ‘옥림’이 쓴 시가 수준이 낮다며 비꼬는 말을 했다.
- 04 ‘옥림’과 ‘세리’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말하여 갈등이 심화되었으므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05 부정적인 말이 쌀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듯이, 부정적인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단계

- 06 농부는 짐승이라도 그것이 듣는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평가 목표	상대를 배려하며 말하는 방법 알기
채점 기준	✓ <보기>의 교훈을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쓴 경우 [25점]
	✓ 내용이 부족한 경우 [15점]
	✓ 명령형의 한 문장이 아닌 경우 [5점 감점]
	✓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적중 대 단 원 평가

본문 49~53쪽

- 01 ② 02 ⑤ 03 ② 04 ㉠: 물건 대금을 당장 받아 내려 한다. ㉡: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 05 ⑤ 06 ① 07 인물과 인물의 외적 갈등 / ‘신사’는 수리비를 가져올 때까지 자전거를 맡아 두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고,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침으로써 갈등을 해결했다. 08 ④ 09 ④ 10 ④ 11 ③ 12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칭찬했기 때문이다. 13 ⑤ 14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15 ⑤ 16 ③ 17 ③ 18 ③ 19 나와 상의도 없이 무대를 바꿔서 내가 좀 당황스럽고 서운해. 우리가 함께하는 무대이니만큼 네가 나와 먼저 상의하고 결정하면 좋겠어. 20 ③

- 01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신(神)과 같은 입장에서 서술하므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모두 알고 있다.
- 02 ‘바람’에 대한 도시 사람들과 ‘수남’의 인식은 매우 다르다. 도시 사람들에게 바람은 사고를 일으키거나 먼지, 쓰레기를 불러오는 부정적 존재일 뿐이지만 시골에서 나고 자란 ‘수남’에게 바람은 자연에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이다. 따라서 ‘수남’은 시골의 바람 부는 풍경을 아는 사람이 골목에서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독을 느낀 것이다.
- 03 (나)에서 ‘수남’은 ‘주인 영감’의 말이 자신이 다칠 것을 걱정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주인 영감’ 자신이 손해 볼 게 겁난다는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마음이 언짢은 것이다.

04 **서울형** '××상회 주인'은 '수남'에게 물건 대금을 가능한 한 나중에 주려고 하고, '수남'은 장사꾼의 징그러운 수를 쓰며 악착같이 끌어서라도 물건 대금을 당장 받으려 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05 자신의 자전거가 '신사'의 차에 흠집을 낸 것도 몰랐던 '수남'은 '신사'의 다그침에 당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신사'가 수리비로 오천 원을 요구하며 자전거를 빼앗았을 때는 자전거를 되찾지 못할까 봐 걱정하였을 것이다. 또한 구경꾼들의 부추김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칠 때는 일종의 쾌감, 해방감을 느꼈다.

06 '수남'의 자전거가 바람에 쓰러져 '신사'의 고급 차에 흠집을 낸 것이 두 사람 간 갈등의 원인이다. '수남'은 '신사'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지만 이는 갈등의 완전한 해소가 아니라 '수남'의 또 다른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된다.

07 **고난도 서울형** (가)~(라)에는 자동차 수리비를 받아 내려는 '신사'와 수리비를 내지 않으려는 '수남'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신사'는 수리비를 가져올 때까지 자전거를 맡아 두려 하는 반면,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침으로써 갈등을 일단락 짓는다.

평가 목표	갈등의 전개 과정 이해하기
채점 기준	✓ 갈등 양상과 갈등 해소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쓴 경우 [상]
	✓ 갈등 양상을 쓰고 각 인물의 갈등 해소 방법 중 하나만 쓴 경우 [중]
	✓ 갈등 양상과 갈등 해소 방법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 [하]

08 [A]는 여러 명의 구경꾼들이 와글와글 외쳐 대는 장면이므로 사람들의 입만 파르파르 촬영한 다음 그 화면을 떼어 붙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09 (가)와 (나)에서 '수남'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에서 그의 비양심성, 부도덕성을 깨닫고 혐오감을 느낀다. 이는 소년인 '수남'의 눈으로 물질적 이익을 중시하는 '주인 영감'을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 (다)에서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았는지를 두고 고민하며 갈등하는데, 이는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이다. ④가 내적 갈등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외적 갈등에 해당한다.

11 ㉠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주인 영감'의 평가로, '주인 영감'의 말과 달리 '수남'은 오늘 자신이 한 일이 옳은 일이었는지 고민하게 된다.

- 오답 풀이** ① '주인 영감'이 '수남'의 모습을 보고 '도둑놈 꼴'이라고 하자, '수남'은 그 말이 가슴에 걸려 죄책감을 느낀다. 이는 '수남'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②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말을 듣고 '수남'의 '주인 영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 ④ '수남'의 내적 갈등이 드러난 부분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있다.
- ⑤ '수남'이 자전거를 들고 도망칠 때 죄책감보다 쾌감을 느꼈던 것을 반성하는 부분으로, 이는 '수남'이 고민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12 **서울형**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오히려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에서 '주인 영감'이 도덕적 양심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3 서울로 돈 벌러 갔던 '수남'의 형은 빈손으로 집에 갈 수 없어 읍내 양품점을 털어 훔친 돈과 물건을 들고 왔다가 순경한테 잡혀 간다.

14 **서울형** '수남'은 자신이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갈 때 느낀 쾌감이 자기 내부에 도사린 부도덕성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주인 영감' 곁을 떠나,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심하면서 도덕성을 회복한다.

15 ㉠은 돈과 물건을 훔쳐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형 '수길'의 얼굴빛으로, 비양심성, 부도덕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가기로 하면서 '수남'의 얼굴에서 ㉠이 가셨다는 것은 '수남'을 둘러싼 부도덕성이 해소되었음을 뜻한다.

16 '길동'은 서자로 태어나 남에게 천대를 받는 서러움과 출세하여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알릴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17 (가)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을 실험한 결과를 통해 말이 지닌 힘을 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했던 언어생활을 반성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외래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을 순화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② 제시된 실험 결과는 쌍말에 일어난 변화를 통해 말이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 ④ 실험 결과는 우리말의 맞춤법 사용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언어생활 태도에 대한 반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 ⑤ 말을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입장에서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긍정적인 말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18 '옥림'은 '세리'가 무대를 마음대로 바꾼 것에 화가 나서 '세리'의 피아노 연주 실력이 부족하다고 비꼬고 있다. '세리'의 연주 실력이 진심으로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한 말이 아니다.

19 **고난도 서울형** ㉠에서 '옥림'은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무대를 바꿔 놓은 것 때문에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은 '너'를 주어로 하는 '너 전달법'이므로 듣는 '세리'는 비난을 받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이를 '나'를 주어로 하여 나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평가 목표	'나 전달법'으로 바꿔 표현하기
채점 기준	✓ ㉠을 '나 전달법'으로 (조간)에 맞게 바르게 표현한 경우 [상]
	✓ ㉠을 '나 전달법'으로 표현하되, 상대의 행동에 대해 내가 받은 느낌만 쓰거나 나의 제안만 쓴 경우 [중]
	✓ ㉠을 '나 전달법'으로 미흡하게 표현한 경우 [하]

20 친한 사람들끼리 비속어를 사용하면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한 언어생활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01 유성 02 ② 03 ④ 04 ④ 05 촉각적 심상,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 털에 06 ④ 07 함박눈, 편지, 새살 08 ① 09 ③ 10 ④ 11 ④ 12 ⑤ 13 ⑤ 14 '함박눈'은 시인이 작품 속에서 창조해 낸 문학적 상징이지만, <보기>의 '호랑이'는 오래전부터 되풀이해서 쓰인 관습적 상징이다. 15 ② 16 ⑤ 17 책을 선정하는 기준(책 선정 기준) 18 ④ 19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한다. 20 ⑤ 21 ④ 22 ③ 23 ㉔: 글의 목적 ㉕: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 24 ⑤ 25 ②

01 **서술형** '빛나간 야구공'은 (가)의 제목인 「유성」을 참신하고 생동감 있게 나타내기 위해 빗대고 있는 표현이다. 두 대상은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02 (나)에서 다루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은 '털, 눈, 입술, 수염'이고, 이를 통해 떠올린 봄의 느낌은 '고운 봄의 향기, 미친 봄의 불길, 포근한 봄의 줄음, 푸른 봄의 생기'이다.

03 (나)의 제목인 「봄은 고양이로다」와 같이,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연결어 없이 결합하여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한다.

04 ㉔은 <보기>와 마찬가지로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일상적 표현을 활용한 <보기>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들이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를 ㉔과 같이 바꾼다고 해서 규칙적인 운율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②, ⑤ <보기>와 ㉔ 모두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시구의 내용이 달라져서 주제에 변화가 생긴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와 달리 ㉔은 은유법, 의인법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표현한 시구이다.

05 **서술형** ㉔에 쓰인 심상은 촉각적 심상이다. (나)의 1행인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에도 피부의 감촉을 통해 느껴지는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06 (가)의 말하는 이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존재로 살고 싶어 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외로운 할머니를 보살펴 드리며 관심을 갖는 ④이다.

07 **서술형** (가)에서 부정적 의미를 지닌 '진눈깨비', '바람', '깊고 붉은 상처' 등과 대비되는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는 '함박눈', '편지', '새살'이다.

08 <보기>의 학생은 꿈이 있지만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숙제를 게을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학생에게는 그칠 때가 없이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본받으라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09 (나)의 제6수에서, '작은 것, 너, 내 벗'은 모두 '달'을 가리킨다. 따라서 ①, ②, ④, ⑤는 의미하는 대상이 모두 동일하다. '만물'은 달이 떠서 비추는 '온 세상(모든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0 (나)에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따뜻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소망이 '함박눈'을 통해 드러난다. (다)에는 '물', '바위', '달'과 같은 자연물의 특징을 바탕으로 말하는 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드러난다. 그에 비해 (가)에는 말하는 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은유법과 의인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생생하고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② (나)는 긍정적인 뜻을 지닌 '함박눈, 편지, 새살'과 같은 시어와 부정적인 뜻을 지닌 '진눈깨비, 바람, 깊고 붉은 상처'와 같은 시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상징하는 바가 대비되는 시어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바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③ (다)는 총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담아내고 있다.

⑤ (가)에는 비유법이 사용되었고, (나), (다)에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욱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1 ㉔은 귀를 통해 소리를 듣는 심상인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유성'이 나타나려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

12 (다)는 시조로, 4음보의 음격, 3장 6구의 기본 형식, 종장 첫 구의 글자 수 고정 등 일정한 형식과 규칙에 맞춰 지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이다. 제2수와 제3수의 초장과 중장이 대구를 이루고 있지만, 종장과 중장이 대구를 이루지는 않는다.

13 ㉔의 '꽃'은 '풀'과 더불어 쉽게 피었다가 쉽게 지는 순간적인 속성을 지닌 자연물이다. 따라서 이 시조에 제시된 두 자연물은 시류에 영합하며 자꾸 태도를 바꾸는 사람이나 그러한 태도를 상징한다.

14 **고난도 서술형** (나)의 '함박눈'은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존재'를 상징하는 시어로, 시인이 작품 속에서 창조해 낸 '문학적 상징'이다. 반면 <보기>의 '호랑이'는 일반적으로 '용맹,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오래전부터 되풀이해서 쓰인 상징인 '관습적 상징'이다.

평가 목표	상징의 개념 이해하기
채점 기준	✓ 두 대상의 상징이 어떻게 다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상]
	✓ 두 상징의 차이를 서술하였으나 조건 ②를 따르지 않은 경우 [중]
	✓ 두 상징의 차이를 조건 ①을 따르지 않고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5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낱말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생기면 도서관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16 '나라'는 '지민'이 고른 책에 어려운 낱말과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책을 모둠에서 함께 읽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17 **서술형** 모둠 구성원들은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책을 선정할 때에는 관심 분야의 책인지, 흥미와 수준에 맞는 책인지, 책이 읽기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8 (마)의 첫 문장으로 보아, 글쓴이는 첫인상이 제한된 정보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이 글의 글쓴이는 사람들이 첫인상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원인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다)에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여 자신의 판단을 확인하는 현상을 말한다.

③ 글쓴이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의 사례로 혈액형 성격학을 제시하였다.

19 **서술형** (마)의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는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버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의 실제 모습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20 <보기>는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의 행동을 예측한 내용이다. 즉 이 글이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측한 것이므로, '글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해당한다.

21 ㉔의 '제멋대로 확신해 버린다.'라는 표현을 통해 글쓴이가 '가설 검증 바이어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글에 나타난 정보나 읽기 맥락을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이나 태도를 예측한 것이다. 또한 '가설 검증 바이어스'는 자신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여 자신의 판단을 확인하는 현상으로 사회 심리학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2 (가)는 통일성이 없는 글의 예로, 한 편의 글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주제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③은 (가)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와 같이 한 편의 짧은 글을 쓸 때에는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23 **서술형**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 주제, 글의 종류 등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정우'는 친구들에게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글쓰기를 계획했고, 이는 '정우'가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이기도 하다.

24 (다)는 독도에 사는 다양한 어류들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자료이므로 독도가 환경·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5 ㉔은 독도에 식물이 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독도의 환경이 특수하며, 그곳에 희귀한 생물들이 많이 살아서 독도가 환경·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을 설명하고 있는 (라)의 중심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에 글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다.

01 ⑤ 02 반짝거리는 별들로 가득 찬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03 ③ 04 ② 05 ② 06 진눈깨비: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한 사람, 함박눈: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 07 ④ 08 ② 09 ③ 10 ② 11 ① 12 ② 13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자는 의미이다. 14 ② 15 책을 선정하는 방법(책을 고르는 방법) 16 ① 17 ④ 18 ④ 19 ① 20 ㉔: 동등한 사람은 절대력이 부족하다. ㉕: 받아들이지 않음. 21 ⑤ 22 ③ 23 ④ 24 내용 조직하기 25 ⑤

01 <보기>는 (가)의 주제이다.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유성의 생동감'이라는 (가)의 주제를 고려할 때, '빛나간 야구공 하나'가 유리창을 깨고 떨어져 구르는 모습은 궤도를 벗어난 유성의 자유로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02 **서술형** (가)는 '밤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의 풍경과 그 사이로 떨어지는 '유성'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이러한 시의 내용을 고려할 때, (가)를 창작하기 전 시인은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03 ㉔과 <보기>의 밑줄 친 시행 모두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㉔은 반짝거리는 별들이 떠 있는 '밤하늘'의 모습을 '별들의 운동장'이라고 표현하였고, <보기>의 밑줄 친 시행 또한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호수'라고 표현하였다. ③과 같은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다.

04 ㉔는 시각적 심상, ㉕는 청각적 심상, ㉖는 후각적 심상, ㉗는 촉각적 심상, ㉘는 시각적 심상이 쓰이고 있다.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심상이 쓰이지 않은 시구는 ㉕로, 후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눈으로 보는 듯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③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후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④ 피부의 감촉으로 느끼는 듯한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⑤ 눈으로 보는 듯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05 (가)에서는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 대립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이 시에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는 나타나지만, 이에 저항하는 의지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06 **서술형** <보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눈발'을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진눈깨비'는 이웃에게 무관심하거나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을 뜻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함박눈'은 이와 대조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다가가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 주는 사람을 뜻함을 알 수 있다.

07 (나)의 제3수에서 말하는 이는 '꽃', '풀'과 달리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바위'를 예찬하고 있다. 이로 보아 말하는 이가 자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꽃'과 '풀'처럼 쉽게 변하는 자연의 속성을 통해 신념이나 절개를 쉽게 저버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나)에서 ‘물, 바위, 달’은 말하는 이가 본받고 싶어 하는 자연물로 예찬의 대상이지만, ‘구름, 바람, 꽃, 풀’은 쉽게 변하는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 말하는 이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

09 (가)의 [A]는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였고,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꽃잎이 사람처럼 방긋 웃는다고 표현하였다. 즉, 이 둘은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답 풀이 ①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표현 방법을 도치법이라고 한다.

② 살아 있지 않은 것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활유법이라고 한다. [A]의 경우 무생물인 별들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였으므로 활유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생물인 꽃잎을 사람에 비유하였으므로 활유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상 등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감각적 실체로 표현하는 수사법을 상징이라고 한다.

⑤ 비슷한 성질을 지닌 두 사물을 ‘~처럼, ~같이’와 같은 연결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한다.

10 (나)는 전체적으로 ‘봄’을 ‘고양이’의 모습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고양이’의 모습을 ‘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1 1연에서는 ‘고양이의 털’과 ‘꽃가루’를 ‘부드럽다’는 공통점으로 연결하고 있고, 2연에서는 ‘고양이의 눈’과 ‘금방울’을 ‘동그랗다(호동그랗다)’는 공통점으로 연결하고 있다.

12 말하는 이가 바라는 삶은 ‘함박눈’과 같이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기쁨, 희망, 위안을 주는 삶이다. 국회 의원 당선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고아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함박눈’과 같은 존재로 보기 어렵다.

13 **고난도 서술형** ㉠에서 ‘잡 못 든 이’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뜻하고, ‘편지’는 ‘위로, 격려, 희망’ 등을 상징한다. 따라서 ㉠은 우리가 눈발이라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곁에 ‘편지’처럼 다가가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는 의미를 지닌다.

평가 목표	시어 및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의 의미를 밝혀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상]
	✓ ㉠의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조건 ②를 따르지 않은 경우 [중]
	✓ ㉠의 의미를 조건 ①을 따르지 않고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14 ㉠은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의 모습을 표현하였고, ㉡는 따뜻하다는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함박눈의 긍정적인 의미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과 ㉡에서 모두 감각적 이미지가 느껴진다.

15 **서술형** 모둠 구성원들은 환경 분야에 관한 책을 고르기 위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화를 통해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는 방법, 주변 사람에게 추천을 받는 방법, 인터넷을 검색하는 방법, 책을 소개해 주는 신문 기사나 블로그에 올린 서평을 찾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16 ‘준서’의 첫 번째 말을 통해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환경 분야의 책을 읽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책을 선정하는 방법을 정한 후에는 책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정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

④, ⑤ 책을 읽으면서 그날그날 읽은 부분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낯선 낱말이나 모르는 개념,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런 후에 일지를 바탕으로, 낯선 낱말이나 모르는 개념에 관한 자료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본다.

17 ‘일지’를 작성할 때는 읽은 책의 내용과 책을 읽고 느낀 점, 자료를 찾기 위해 필요한 내용 등을 기록해 둘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읽을 책에 관한 내용을 일지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18 예측하며 읽는다고 해서 글의 내용을 항상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측하며 읽기는 예측 활동 자체로 의미가 있지,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19 <보기>는 독자가 (가)를 읽으며 예측한 내용이다. 독자는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과거에 다큐멘터리를 보았던 경험 즉, 배경지식을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 **서술형** (다)에서 제시한 가설은 ‘뚱뚱한 사람은 절제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가설을 믿는 사람은 뚱뚱한 사람의 여러 행동 중에서 가설에 들어맞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가설에 들어맞지 않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21 (라)에 제시된 그래프는 지구의 기온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주어,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에서 제시한 것이다.

22 (가)에서 ‘정우’가 쓰려는 글의 주제는 ‘독도의 지리와 역사, 가치’인데, ③은 이러한 주제와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② 독도의 지리를 알리기 위해 독도의 위치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책과 독도의 구성과 위치를 설명하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독도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였음을 설명하는 자료로 백과사전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독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독도에는 사시사철 다양한 어류들이 살아 환경·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설명하는 다큐멘터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23 ‘가운데-2-다. 현대의 역사’는 독도와 관련된 여러 분쟁이 진행 중인 현대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생략하면 안 된다.

24 **서술형** (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작성한 개요이다. 개요는 생성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구조화한 글의 뼈대이다.

25 (다)의 중심 내용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이다. ㉠~㉢은 ‘독도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이 있지만, ㉣은 ‘독도의 위치’와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01 ① 02 ⑤ 03 ② 04 ⑤ 05 조사,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준다. / '이다'를 제외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 홀로 쓰일 수 없고 언제나 앞의 말에 붙어 쓴다. 06 ④ 07 ⑤ 08 ③ 09 ⑤ 10 의사가 사용한 말은 의학 분야의 전문어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소통할 때에는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야 한다. 11 ④ 12 ⑤ 13 ⑤ 14 이 글은 작품 밖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파악해 서술한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보기>는 작품 안에 있는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15 ⑤ 16 ④ 17 ⑤ 18 ① 19 ⑤ 20 ⑤ 21 수남이는 짐을 꾸렸다. 22 ④ 23 ④ 24 ⑤ 25 '너 전달법'을 사용하여 말한 것으로, 듣는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

01 낱말은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말과 변하지 않는 말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동사, 형용사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함께 문장 안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

02 체언이란 주로 주어, 목적어 등 문장의 주체가 되는 자리에 쓰이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 ⑤의 '세'는 뒤에 오는 '권'이라는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로 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며 수식언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에 해당한다.
② 사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에 해당한다.
③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에 해당한다.
④ 특정하거나 유일한 대상의 명칭을 나타내는 명사에 해당한다.

03 <보기>의 낱말들은 모두 용언으로, 문장에서 주로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고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04 ㉠은 '학생'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은 '놀라셨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다. 관형사와 부사는 모두 문장 안에서 다른 말을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 품사이지만, 꾸미는 대상이 다르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 주고,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

05 **서술형** <보기>의 밑줄 친 낱말들은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품사인 조사이다. 조사는 서술격 조사 '이다'를 제외하고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홀로 쓰이지 못하는 특성을 지닌다.

06 ㉢은 '찾습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 ㉡, ㉣, ㉤은 모두 감탄사이다.

- 오답 풀이** ① ㉠은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② ㉡은 대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③, ⑤ ㉣, ㉤은 느낌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07 하나의 낱말이 여러 뜻으로 쓰이는 고유어와 달리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뜻이 구체적인 경우가 많아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08 ㉢의 '치료(治療)하다'는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하다.'는 뜻으로, 모양이나 내용 따위를 바꾼다는 의미로 쓰인 ㉢의 '고치다(고쳐)'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09 <보기>의 낱말들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말처럼 사용되는 외래어로, 대부분 고유어로 바꾸기 어려우나, 우리말 어휘를 풍부하게 해 준다. 우리말에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은 고유어이다.

10 **서술형** 의사가 사용한 말은 의학 분야의 전문어로, 일반인들은 말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쉽게 풀어 사용해야 한다.

11 <보기>에서 손녀가 쓰는 줄인 말은 청소년 계층과 같은 젊은 세대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하지만 손녀는 대화 상대가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줄인 말을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12 <보기>의 '이 말'은 은어를 가리킨다. ①~④는 심마니들이 그들끼리만 사용하는 은어이다. 그러나 ⑤의 '네티즌'은 외래어이며 이를 순화한 말이 '누리꾼'이다.

13 (가)~(라)는 작품의 전체 구성 단계 중 발단과 전개에 해당한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등장인물과 배경이 소개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되고 있을 뿐, 인물들 간 갈등의 원인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주인공 '수남'의 직업은 전기용품 도매상의 꼬마 점원으로, 이는 (가)에 제시되어 있다.
②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청계천 세운 상가로, 이는 (가)에 제시되어 있다.
③ (나)에서 '수남'은 '주인 영감'의 진짜 속셈은 알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준다는 생각에 감동을 받고,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한다. (나)에는 '수남'의 이러한 심리 상태와 더불어 순진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
④ (나)에서 '수남'은 '주인 영감'에게 고마운 감정을 느끼지만, (라)에서는 '주인 영감'의 말에 고개워난다.

14 **고난도 서술형**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 심리, 사건에 대해 신처럼 다 알고 이야기를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보기>는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평가 목표	시점의 차이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이 글과 <보기>의 서술자의 위치와 시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상]
	✓ 이 글과 <보기>의 시점을 맞게 서술하였지만, 서술자의 위치를 쓰지 않은 경우 [중]
	✓ 이 글과 <보기>의 시점 중 하나가 틀린 경우 [하]

15 다친 사람의 안위보다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전선 도매집 주인아저씨'를 동정하는 모습과 '수남'의 안전보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더 염려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에 도시인들의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태도가 잘 드러난다.

16 (가)에는 세찬 바람이 부는 골목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수남'에게 불길한 사건이 발생할 것임을 암시한다.

17 '신사'가 '수남'의 자전거를 잡아 놓기로 결심한 이유는 (라)에 제시되어 있다. '신사'는 '수남'이 차 수리비를 내지 않으려고 하자, '수남'에게 차 수리비를 끝까지 받아 내기 위해서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운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신사'는 차에 생긴 생채기를 찾아내고는 덩치값도 못하게 팔짝팔짝 뛰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②, ④ 바람에 쓰러진 '수남'의 자전거가 '신사'의 차를 들이받으면서 '신사'와 '수남'의 갈등이 시작된다. '신사'는 '수남'에게 차 수리비를 받으려고 하고, '수남'은 돈을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③ '수남'은 '주인 영감'을 위해 수금한 돈 만 원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다.

18 '수남'은 갑작스럽게 몰려온 바람 때문에 흙먼지를 뒤집어쓰게 되자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과 같이 행동한 것일 뿐, 부끄러움 때문에 눈을 감은 것은 아니다.

19 자기편이 되어 준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고 한 '수남'의 말에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심리가 담겨 있다. '수남'이 자신을 응원해 준 사람들에게 대해 실망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

20 (나), (다)에는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수남'의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기에 “네놈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다”라고 한 '주인 영감'의 말이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 것이다.

21 **서술형** '수남'은 도덕적으로 자신을 견제해 줄 어른(아버지)이 계신 고향에 가기로 마음먹으면서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소한다.

22 ㉠은 '수남'의 옳지 못한 행동을 칭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주인 영감'의 부도덕성을, ㉡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며 쾌감을 느꼈던 '수남'의 부도덕성을 의미한다.

23 말하기 상황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만 대화 참여자들의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갈등의 원인을 찾아 누구의 탓인지 밝혀내면서 서로 잘못만 지적하다 보면 갈등이 더 심화될 뿐이다.

24 말의 영향력을 실험한 결과를 다룬 ㉠을 통해 부정적인 말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사용하는 비속어의 통계 수치를 보여 주는 ㉡을 통해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5 **서술형** ㉢와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의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인 '너 전달법'을 사용하여 말한 것이다. '너'를 주어로 하여 말을 하면 듣는 상대가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느껴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할 수도 있다.

01 ① 02 ㉠: (큰 나라에서 온 거만한) 사신, ㉡: (불가사리가 새겨진 크고 화려한) 굴뚝, ㉢: 연못가 03 ③ 04 ② 05 ①
06 ③ 07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쌀과 관련된 말이 발달했다. 08 ⑤ 09 ③ 10 ④ 11 ⑤ 12 ⑤
13 ② 14 ③ 15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에 실망함.(주인 영감=도둑놈 두목) 16 ③ 17 ③
18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도덕성을 중시하는 인물로,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인물인 '수남'의 형('수길'), '주인 영감'과 대조된다.
19 ⑤ 20 ⑤ 21 ④ 22 자신과 마찬가지로 출생이 천했지만, 당시의 신분 질서에 항거했던 '길산'을 본받아 적서를 차별하는 현실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23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쓰도록 노력하자. 24 ① 25 ④

01 품사는 형태(형태가 변하는 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 기능(체언, 용언, 수식언, 관제언, 독립언), 의미(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분류한다.

02 **서술형** ㉠~㉣은 모두 대명사로, 대명사는 사람,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이다.

03 ㉠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04 ㉢은 뒤에 나오는 '가수'라는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관형사는 문장 안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05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 준다.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이지만,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는 문장 안에서 쓰일 때 그 형태가 변한다. ㉠의 '-을'은 형용사 '깊다'가 활용할 때 결합한 연결 어미이다.

06 ③의 '생각'은 문맥의 의미를 고려할 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뜻을 지닌 '상념(想念)'과 바꾸어 쓸 수 있다. '명상(冥想)'은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다.

07 **서술형** 우리말에는 벼, 쌀, 밥을 가리키는 말이 각각 따로 있지만 영어에서는 'rice'라는 말로만 표현하거나 'rice'를 바탕으로 만든 말로 표현한다. 우리말에 쌀과 관련된 낱말이 영어보다 다양한 것은 농경 문화와 관련이 있다.

08 (나)에서 두 사람은 같은 지역의 지역 방언으로 대화하고 있다.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특정 지역의 향토색을 느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방송'이라는 공식적인 대화 상황으로, 두 사람이 표준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② (나)는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에서 이야기하는 비공식적인 대화 상황으로,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③ 지역 방언은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는 친근감과 유대감을 주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질감과 소외감을 줄 수 있다.

④ (가)보다는 (나)와 같이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끼리 비공식적 대화 상황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할 경우 친근감을 느끼기 쉽다.

09 지역 방언은 그 지역 특유의 정서를 담고 있어 문학 작품에서 이를 사용하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고유한 정서를 잘 담아내어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를 더욱 섬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친밀감을 형성하고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지역 방언을 사용했을 때의 효과이다.

10 <보기>의 밑줄 친 낱말인 ‘레가토’와 ‘트리플렛’은 음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어이다. 전문어는 학술이나 기타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뜻으로 쓰는 말로, 전문적인 작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돕는다.

11 (가), (나)에는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회 주인’과 물건 대금을 받으려는 ‘수남’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그리고 (다), (라)에는 차 수리비를 받으려는 ‘신사’와 그의 동정심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는 ‘수남’의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

12 고급 자동차를 몰면서 어린 ‘수남’에게 끝까지 차 수리비를 받아 내려고 하는 ‘신사’의 모습으로 보아 그가 인색하고 야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 ‘수남이는 비실비실 안 나오는 웃음을 웃으며’는 ‘수남’이 ‘××상회 주인’을 배려하는 행동이 아니라 물건 대금을 받아 내기 위해 ‘××상회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이다. 이를 통해 ‘수남’ 역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 생활에 물들었음을 알 수 있다.

14 (가), (나)에서는 ‘수남’과 ‘신사’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소설의 구성 단계 중 ‘위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결말’에 대한 설명이다.

② ‘전개’에 대한 설명이다.

④ ‘발단’에 대한 설명이다.

⑤ ‘절정’에 대한 설명이다.

15 <고난도 서술형>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 온 자신을 혼내기느라 오히려 칭찬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에 실망하고, 자물쇠를 분해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이 도둑놈 두목 같아 보인다고 생각한다. 자전거 사건 이후로 ‘수남’은 ‘주인 영감’이 고마운 존재에서 실망스러운 존재로 바뀌었다.

평가 목표	인물의 태도 변화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주인 영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나타내는 말을 포함하여 ‘수남’의 태도 변화를 앞의 형식과 동일하게 서술한 경우 [상]
	✓ ‘수남’의 태도 변화를 앞의 형식과 동일하게 서술하지 않은 경우 [중]
	✓ ‘주인 영감’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나타내는 말을 포함하지 않고, ‘수남’의 태도 변화를 서술한 경우 [하]

16 ‘수남’은 문득 도둑질을 저질러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을 떠올린다. 그리고 자전거를 훔친 자신에게도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17 이 소설은 1970년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던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비양심적이고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도시인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따라서 토속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18 <서술형> (나)에서 아버지가 ‘수남’에게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버지’는 도덕적 가치보다 금전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주인 영감’, 도둑질을 한 ‘수남’의 형과 대조적인 인물이다.

19 이 소설은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돈을 벌러 서울에 온 ‘수남’이 겪는 다양한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수남’의 모습을 통해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시 사람들의 물질만능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한다.

20 이 글에서 ‘길동’이 세상을 벗어나려 하는 이유는 적서를 차별하는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속세를 떠나 무예를 수련하는 것이 유행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ㄱ. (가)의 “재상의 집안에서 천한 노비에게 태어난 사람이 너뿐이 아니다.”라는 대감의 말에서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 외에 첩을 여러 명 두는 것을 허용하는 축첩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ㄴ. (가)의 “하인들까지 모두 천하게 보며, 친지와 친구조차도 아무개의 천생이라고 이릅니다.”라는 ‘길동’의 말에서 양반과 종(천민)의 구분이 있는 신분 차별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ㄷ. (나)의 “사내대장부가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입신양명 한 후 조상을 섬기고 부모의 은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아야 할 것입니다.”라는 ‘길동’의 말에서 출세하여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입신양명)과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21 이 글에서 ‘길동’은 서자라는 이유로 출세에 제약을 주고 차별하는 신분제 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인물과 그 인물이 속한 사회와의 갈등으로, 외적 갈등의 한 유형이다.

22 <서술형> ‘길동’은 표면적으로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 출가한다고 하였지만, 당시의 신분 질서에 저항한 인물인 ‘길산’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출가하려는 진짜 이유는 사회 제도에 대항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길동’이 집안에서는 풀지 못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기도 하다.

23 <서술형> (가)에서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을 실험한 결과를 통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고, (나)에서는 ‘욕립’과 ‘세리’의 말다툼에서 부정적인 말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24 긍정적인 말을 들려준 쪽에서 ㉠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의 ‘상대를 탓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과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들려주었을 말이 아니며, 이러한 말을 들려주었다면 오히려 거무스름한 곰팡이가 피고 심한 악취가 났을 것이다.

25 ㉡는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고 실력이 부족하다며 비꼬듯이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결국 인간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된다.